

석사학위논문

만족도 평가에 의한 잠재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임현정

지도교수 변우희

2003년 2월

만족도 평가에 의한 잠재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임 현 정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지도교수 변 우 희

2003년 2월

林賢貞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위 원 장 조 현 호 인

위 원 유 영 준 인

위 원 변 우 희 인

경주대학교 대학원

2003년 2월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연구지역 개관	5
II. 이론적 배경	10
1. 잠재관광자원의 개념적 체계	10
2. 관광객 만족의 개념 체계	13
III. 연구의 방법과 절차	19
1. 표본 특성	19
2. 조사 도구	20
3. 연구 절차	22
4. 자료분석 방법	23
IV. 자료 분석	25
1. 관광형태	25
2. 경주 남산의 잠재관광자원 만족도 평가	36
3.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 평가	68
V. 요약 및 결론	75
1. 요약	75
2.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6
부 록	88

표 차 례

<표 1> 지정문화재현황	8
<표 2>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 현황	9
<표 3> 평가설정인자	13
<표 4> 표집 대상의 일반적 배경	20
<표 5> 설문지 내용구성	22
<표 6> 정보의 원천	26
<표 7> 동반자 유형	28
<표 8> 방문 목적	29
<표 9> 이용교통수단	31
<표 10> 방문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비	33
<표 11> 총 경비	35
<표 12>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37
<표 13> 남산의 보존 여부	39
<표 14> 대체코스개발의 필요성	41
<표 15>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43
<표 16>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	45
<표 17> 자연경관의 매력도	47
<표 18> 자연자원의 보존상태	49
<표 19> 휴식처 · 문화공간	51
<표 20> 남산 보호시설	53
<표 21> 경주 남산의 접근 성	55
<표 22> 경주 남산의 홍보 물	57
<표 23> 경주 남산의 안내시설	59
<표 24> 문화재의 해설기능	61
<표 25> 주차장 수용력	63
<표 26>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수	65
<표 27> 경주 남산의 국제성	67

<표 28> 경주 남산의 만족도	69
<표 29> 재 방문 의사	71
<표 30> 추천의도	7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한국관광연구원, 1998a), WTO에서는 21세기 여행형태의 전망에서 모험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과 함께 문화관광이 21세기 대표적인 여행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국 관광연구원, 1998b). 다른 지역의 고유한 것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관광으로 이어져 지방의 문화·예술·역사를 배울 수 있는 관광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각 지역에서는 고유의 문화유산을 상품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도시로, 문화를 보고 체험하기를 희망하는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지이자 관광 상품이다. 그러나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를 보면 세계문화엑스포 같은 문화행사가 있는 해에는 그 수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¹⁾. 이는 경주의 관광자원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경주가 관광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차별화 된 관광상품의 부족을 들 수 있다(박종희, 2000).

경주에서 관광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1) 경주시의 관광객수는 98년에는 906만으로 나타났으나 99년에는 655만으로 감소하였고, 엑스포가 열린 2000년에는 808만, 2001년에는 137만 감소한 671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주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잠재자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경주에는 이미 잘 알려진 관광자원 외에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장소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 설화나 전설, 역사적 인물 등 관광 자원적 가치가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관광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의 잠재관광자원들 중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적지를 포함한 문화재가 풍부한 경주 남산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경주 남산은 1971년 11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13점, 사적 12개소가 있고, 400점이 넘는 불상 및 석탑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어 「벽 없는 박물관」, 「살아있는 노천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다.

그 가치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는 각종 문화재는 현재 대다수의 관광전문가로부터 관광대상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주 남산의 문화자원들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주 남산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가치 있는 문화재가 산재한 까닭에 문화재학의 측면에서 가치와 보존에 관한 것이 많은 반면, 관광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관광학의 관점에서 남산의 자원을 평가하고,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지역의 고유한 정서가 살아있는 문화재는 다른 종류의 요소들과 같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재 그 자체의 가치가 우수하더라도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관광자원으로서 실제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성기, 1997). 또한 문화재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관광객이 얻고자 하는 요구와 부합될 때 가치 있는 잠재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경주 남산을 활성화하고 관광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은 경주 남산의 자연·문화자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자원이라도 방문객으로부터 흥미를 유발할 수 없다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문객의 관점에서 경주 남산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에 대한 만족도와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 남산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기타 사항에 대해 방문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경주 남산에 대해 방문객이 느끼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관광목적지로서 경주 남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주 남산 방문객의 관광형태는 어떠한가?

방문객의 정보 획득 방법 및 방문 목적, 교통수단, 동반자, 지출경비내용, 총 경비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경주 남산 방문객의 관광형태를 알아보고

자 한다.

2) 경주 남산의 자연 자원 및 문화 자원, 기타사항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문화재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자연경관의 매력성, 자연자원 보존상태, 휴식처·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 대체코스 개발, 보존여부,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남산 보호시설, 접근성, 홍보물, 안내시설, 문화재 해설기능, 주차장 및 화장실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3) 경주 남산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만족도, 재 방문 및 추천의도에 대한 확인을 통해 남산이 가지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4) 경주 남산을 관광목적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와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 남산이 가지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만족도와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주 남산을 관광목적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남산 방문객 300명을 표본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설문지 18

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282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본 확보가 연중, 사계절에 걸쳐서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확보된 표본의 거주지 배경 변인별 분류 결과 경주 또는 경상도에 거주하는 근거리 방문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수준에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의 한계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남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의 형식으로 논문의 연구가 진행됨으로서 현장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연구의 결과가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남산 현지에서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 진행 과정에서 설문 실시자의 수준 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설문 진행 과정에 연구자가 제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설문 실시자 간의 수준 차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4. 연구지역 개관

1) 경주 남산의 역사

경주는 서쪽으로 선도산, 벽도산, 옥녀봉이 솟아 있고 북쪽으로는 독산, 금강산, 금학산 등이 나란히 솟아 있다. 동쪽으로는 낭산, 명활산이 솟아 있으며 멀리 토함산 연봉이 겹으로 둘러막고 있어 서라벌은 천연 성벽으로 둘러싸인 터전이다. 그 중 경주 남산은 옛 신라의 도읍이던 서라벌 남쪽에 솟아 있는 산으로서 앞산이라는 의미로 옛부터 남산으로 불려지고 있는 산이다. 전설에 의하면 고대 경주에 강한 근육의 남신과 고운 얼굴의 여신이 찾아와 발길을 멈추고 산으로 변하였는데 여신은 망산이 되었고, 남신은 역센 바위의 남산이 되었다 한다.

남산의 높이는 금오산 468m, 고위산 494m, 그리고 넓이는 30km²가 되나, 국립공원은 21km²이며 사적지는 25.7km²인데, 남산기슭 일부지역과 도당산이 사적에서 누락되어 있다. 도당산은 매우 신령스러웠던 봉우리로 신라 초기에 국사를 의논하던 아주 중요한 곳이며 현재 토성도 남아있고, 절터도 발견되었다.

남산의 봉우리는 약 180개, 골짜기는 44골이 있으며 남쪽에 있는 고위산이 외산이 되고, 주봉은 금오산이다. 금오산이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문헌상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당의 고운이 쓴 이별시에 금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남산에는 석기시대의 유적을 비롯하여 신라 건국 설화에서 첫 임금의 출생지로 등장하는 ‘나정’, 국방의 심장부였던 ‘남산성’, 서쪽 기슭의 신라 왕국의 별궁이자 신라의 종말을 내리게 한 장소로 알려진 ‘포석정’, 신라 최초의 궁궐터인 ‘창림사’,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화랑 김유신의 효와 충절을 엿볼 수 있는 ‘천관사지’, 등 수 십 개의 절터, 백이 넘는 석불과 폐탑 등 역사적 자취를 간직한 문화유적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또한 변화무쌍한 계곡에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경주 남산의 역사는 바로 신라의 역사라 할 수 있을 만큼 신라시대의 문화재 및 유적과 설화 등에 있어 그 비중이 높다.

경주 남산은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로 1971년 지정된 이후, 1985년 남산 일대가 사적 제 31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에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2) 경주 남산의 지형

경주시의 남쪽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산으로 북쪽의 금오산과 남쪽의 고위산의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들과 계곡 전체를 통칭해서 「경주 남산」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남산의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내린 타원형이면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정상을 이룬 직삼각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북으로 뻗어 내린 산맥에는 상사암·해목령·도당산 등의 봉우리가 있고, 남으로 뻗은 산맥에 고위산이 위치한다.

남산의 지세는 크게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나누어지는데, 동남산쪽은 가파르고 짧은 반면, 서남산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긴 편이다. 서남산의 계곡은 2.5km 내외이고, 동남산은 가장 긴 봉화골이 1.5km 정도이다. 동남산과 서남산에는 모두 40여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유물의 분포는 서남산 쪽이 동남산보다 월등히 많다.

3) 경주 남산 문화재 현황

경주 남산은 유적과 예술의 산으로서 현재까지 이 곳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은 466점이다. 지정문화재는 보물이 13점, 사적이 12개소, 중요민속자료는 고가옥 1채가 지정되었고, 지방 유형문화재가 10점, 기념물 2점, 문화재 자료 3점, 비지정문화재 19점,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들은 몇 백점에 이른다. 현재 남산일원 전체가 사적 3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교유적으로는 44곳의 계곡 부에 절터가 128곳, 불상 100체, 탑 72기(목탑 포함), 석등 21기, 연화대 19기, 왕릉 13곳, 정자터 17곳이 확인된다. 문헌상의 기록으로 볼 때, 많은 절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삼국유사이다.

불상들이 조성된 연대는 다양하여 6·7세기의 것도 있고 통일신라 중기(8세기)의 것, 9세기의 것도 있어 수 백년 흘러온 불교예술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불교 공인 이전부터 자연을 신앙해 왔

다. 자연을 섬기는 토속신앙과 불교가 하나로 어우러져 승화된 것이 남산의 유적과 문화재들이다.

<표 1> 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번호	지정번호	명 칭
보 물	1	제124호	남산동 3층석탑
	2	제136호	미륵곡 석불좌상
	3	제186호	용장사곡 삼층석탑
	4	제187호	용장사곡 석불좌상
	5	제198호	불곡 석불좌상
	6	제199호	신신암 마애보살반가상
	7	제200호	칠불암 마애설불
	8	제201호	탑곡 마애조상군
	9	제666호	삼릉곡 석불좌상
	10	제13호	용장사곡 마애여래좌상
	11	제63호	배동 삼존석불입상
	12	제109호	남간사지 당간지주
	13	제1188호	천룡사지 삼층석탑
사 적	1	제1호	포석정지
	2	제22호	남산성지
	3	제138호	서출지
	4	제172호	오름
	5	제173호	일성왕릉
	6	제186호	정강왕릉
	7	제187호	현강왕릉
	8	제219호	삼릉
	9	제221호	지마왕릉
	10	제222호	경애왕릉
	11	제245호	나정
	12	제311호	남산일원
지방유형문화재	1	제19호	삼릉곡 마애관음보살상
	2	제21호	삼릉곡 선각 6존불상
	3	제94호	입곡 석불두(여래입상)
	4	제158호	삼릉곡 마애석가여래좌상
	5	제159호	삼릉곡 선가가여래좌상
	6	제112호	침식곡 석불좌상(심수굴)
	7	제113호	열암곡 석불좌상(새갓굴)
	8	제114호	약수 마애불입상
	9	제206호	배운대 마애불입상
	10	제198호	보리사 마애석불
중요 민속자료	1	제34호	탑동 김현용 고가옥

자료: 남산 관련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성

<표 2>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 현황

계곡이름	절터	불 상		석탑	석등	불상 대좌	귀 부 비석대	기 타
		입체	마애					
왕정골	3	1				2		정자터3
질골	1			1				
부처골	3	1	1					
탑골	2	1	22	4	2			
미륵골	1	1	1	2				
천암골	1							왕릉1
철와골	2	1			2			왕릉1
국사골	4			4	2	2		
오산계	7	1	1	2				
쑥두덤골	1			2				
승소골	1			2				
천동골	2			3				방아터1
봉화골	3		8	2	4		1	봉화대1
별천룡골	1			2				
백운계	8	3						맷돌1, 석조2, 부도5
대마골	2							
천룡골	3			1	1	2	1	맷돌1, 석조2, 부도5
용장계	18	4	1	7	1	1	1	
비파골	4			4	1			
약수골	6	1	1	1				
배리절골	1							
삿갓골	3	1						
냉골	10	3	11	1	1			왕릉4
선방골	2	4		2				
포석계	15	3	4	13	3		2	
장창골	7	4		4	2	2	1	우물3, 당간지주1,왕릉1, 하수구1
식혜골	2							성지1, 창지3
계	113	29	50	63	19	9	6	41

자료: 윤경렬(1993). 「경주남산-겨레의 땅 부처님 땅」. 경주: 불지사.

II. 이론적 배경

1. 잠재관광자원의 개념적 체계

1) 관광자원의 개념 및 분류

관광자원의 정의는 관광자원의 목적, 관광자원의 대상 범위,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 시대와 국가, 개체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종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먼저 자원이란 개념과 관광이란 개념을 혼합한 관광자원의 개념을 파악하면 “인간의 일시적 이동에 의한 의식의 승화와 자기 확대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생태계에 대해 기술을 가미한 경제적 가치를 얻는 것”(이장춘, 1998: 74)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자원의 개념을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의 목적, 관광자원의 대상범위, 관광자원의 기본적인 성격, 관광자원의 가치성 등이 그 개념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미지의 지역을 여행할 때 나타나는 모든 유형물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의식주, 생업, 신앙, 행사, 전통적 풍속, 습관까지도 관광자원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든지 관광객의 장소 이동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물을 관광자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광자원의 분류방법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일본관광협회 및 국내의 제 학자와 한국관광공사의 분류들이 있으나 이들 분류의 형태 또한 대동소이하다. 이들 분류 외에도 자원의 입지에 따라 이용자중심형 지역, 중간형 지역, 자원중심형의 3가지로 구분한 Clawson의 3분류, 이용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고밀도 관광지역, 일반관광지, 자연환경지구, 특수경관지역, 야생지역, 역사유적지역으로 구분한 미국자원조사위원회(ORRRC)의 6분류, 행동패턴에 따른 분류로 Gunn은 주유형 관광자원과 체제형 관광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모든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포함시키되 자원개발의 측면과 방문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이용까지도 고려하여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소재지국, 소재지도, 매력물 유형, 매력물 이름, 인위성 정도, 자원의 특징, 자원소 등 8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위적 계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박석희, 1995: 59).

관광자원에 대한 유형분류의 목적과 필요성은 관광 대상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 즉 각종 자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것과 앞으로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 관광자원들의 용도 및 활용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광자에 대한 유인력과 수용력을 측정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분류대상은 현재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원 뿐 아니라 아직까지 관광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든 환경요인과 요소를 포함한다(박선희, 1997: 34).

2) 잠재관광자원의 현대적 의의

잠재적 관광자원의 가치 수준은 사물의 종류, 장소, 시대, 관광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광자원의 종류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가치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잠재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은 자원의 보존, 지역의 경제적 효과, 관광객 요구충족 등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원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숨겨진 관광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잠재관광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비되어 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광객의 요구충족 측면에서 보면, 보다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잠재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잠재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어 관광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잠재관광자원이 개발되어 활성화됨으로서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

3) 잠재관광자원의 평가

관광자원의 평가는 관광자원이 지닌 잠재력에 대하여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개발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작업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 평가는 각각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적용기법 및 평가인자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평가항목은 관광개발 대상지의 개발여건과 가치 즉, 입지성, 자원성, 근접성, 시장성, 제약성, 환경성, 개발상태 등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결정요인을 선정하며 각 요인별 평가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평가한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평가의 결정요인별로 세분한다.

<표 3> 평가설정인자

평가인자	결정요인
입지성	입지여건, 경사도, 부지규모
접근성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항구 등과의 거리관계
시장성	배후도시(대·중·소도시)와의 거리,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
자원성	자원의 유형(단일·복합·종합), 자원분포
연계성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관리(거리, 분포수)
환경성	산림 및 수질상태, 주변토지이용관계
제약성	개발제약조건(개발용이, 개발제약, 그 외 지역)
개발상태	개발상태여부

자료: 박선희(1999). 「관광자원론」. 일신사. p421

또한 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의 관광욕구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기준은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보는 방식과 부합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보면 절대적 조건에는 위락성, 관상성, 다양성, 계절성, 희소성이 포함되며, 부수적 조건으로는 교육성·역사성, 경제성, 안락성·편의성, 안전성·위생성의 기타 조건이 포함된다(김성기, 1997).

2. 관광객 만족의 개념체계

1) 관광객 만족의 개념

관광객만족의 개념은 ‘동기’, ‘선호도’, ‘심리적 결과’, ‘경험 기대’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다루어져왔다(Manning, 1986: 80). 이러한 접근방법은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만족하게 될 관광에 대한 요구와 동기, 경험의 유형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만족, 충족된 심리적 산출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주로 경험의 기능적 측면을 지향하고 있으며, 각 관광객 개인은 요구에 부합하여 만족하기 위한 관광활동, 관여 등을 추구하기 위한 관점으로 파악된다. 관광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어떠한 경험의 유형과 만족에 대한 선호도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관광 및 여가 요구에 대한 다양성의 존재에 기초하고 있다(Iso-Ahola, 1980).

Bultena and Klessig(1969: 349)은 연구에서 “만족이란 열망과 경험의 지각된 실제간의 일치 정도에 대한 기능이다.”라고 하였으며, LaPage (1983: 39)는 “고품질의 야외위락 경험은 방문객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초과하는 정도이다.”로 정의하였다. 평가과정 만족은 요구만족보다도 관광객 만족을 형성하는 지각적, 평가적, 심리적 과정 모두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족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관광객 만족의 연구에서는 이 관점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광객 만족은 요구의 완전한 수행이라는 것보다는 더욱 복잡한 구성개념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Pizam, Neumann and Reichel(1978)은 연구에서 관광객 만족을 “관광목적지에 대한 사전기대와 관광객의 실제 경험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고, 관광객 만족의 구성개념을 여행경험에 있어서 특정영역에 대한 관광객 태도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Dann(1979)은 “기대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의 감정과 관광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광객이 갖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야기되는 전체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2) 관광객 만족의 결정요인

(1) 관광객 만족의 결정 변수

관광객 만족의 결정변수로는 여행 전 형성요인과 여행 경험에 의한 형성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행 전 형성요인을 살펴보면 관광기대, 관광욕구와 동기, 관광목적지 선호도, 관광목적지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기대는 “구매대상의 사용전의 신념”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윤동구, 2001). 기대는 보통 고객의 사전경험에 근거해 형성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객과 친밀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해 형성된 것도 사용될 수 있다. 관광기대의 측정은 관광목적지나 서비스 속성에 대한 예측적 또는 희망적 기대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속성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김두하, 1999).

둘째, 욕구와 동기로 관광동기는 특정한 관광목적지 지향적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욕구나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동기는 일정 목표를 성취하도록 인간행위를 지속시키고 에너지를 투입하는 내부상태이다(표성수, 1996). 욕구는 동기를 유발시켜 관광상품 구매라는 구체적인 관광행동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욕구란 어떤 관광객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주형 외, 1997).

셋째, Pearce(1980)는 관광객 만족은 관광지에 대한 여행 전 선호 경향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관광목적지에 대한 여행 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초 여행전의 선호도가 높다면 관광객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결국 만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미지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나 목적지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반응, 생각, 인상의 총체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

미지는 실제 관광행동으로까지 지속되기 쉬우며, 형성된 이미지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한다. 관광객들은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에 기초하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여행 경험에 의한 형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성과로 소비자 만족 연구에서 제품성과는 실제적 제품성과와 지각된 제품성과로 나뉘어 진다. 지각된 제품성과는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제품성과이다. 따라서 실제적 제품성과와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 만족의 결정변수로서 연구되고 있는 제품성과는 지각된 제품성과이다(권해도, 1990). 관광객 만족에서는 지각된 방문성과가 관광객 만족의 중요한 결정변수이다.

둘째, 관광활동과 지각된 관광경험을 들 수 있는데 관광경험은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관광현지의 경험이 전체 경험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의 경우에는 특히 복잡하여 관광경험과 활동을 몇 가지의 경험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석희, 2000). 관광의 여러 가지의 경험단계가 모여서 전체 경험을 형성하는데, 각 단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관광형태는 연속적이면서 동시적인 면이 있어 관광경험이 구조는 복잡하다.

셋째, 품질, 가격, 가치, 편익으로 관광객은 하고 싶어했던 욕구를 관광경험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관광을 하기 이전에 기대했던 관광경험과 관광을 하면서 또는 관광을 한 후의 경험과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품질은 관광자의 관광 전 기대와 실제 관광경험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관광품질은 관광상품과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광자의 지각인 것이다.

넷째, 감정으로 관광객만족에 있어서 감정적 접근의 중요성은 관광객의 행동을 관광목적지에 대한 경험 이전에 갖게 되는 기대나 경험 후의 성과

에 의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경험 도중에 갖게 되는 경험적 시각이나 감정적 느낌을 중시한다.

다섯째, 문화적 상호작용으로 관광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광객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관광경험은 관광지에서의 다양한 것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무엇인가의 만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촉은 특히 국제관광에서 문화적 접촉, 문화적 충돌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관광객과 현지주민과 현지문화간에는 일정한 문화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심상도, 1992). 일반적으로 문화간 접촉은 이해증대로 문화적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2) 관광객 만족의 결과 변수

만족과 구매 후 행동, 재 방문의도, 추천의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족과 구매 후 행동은 포괄하여 정의하는 경우와 서로 구분하여 별도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재 방문의도나 추천의도에는 만족정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두 변수들을 만족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Geva and Goldman(1991)은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만족개념은 재 방문이나 추천의도와는 다르며, 또 만족을 단순히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참여자들이 만족한다고 하여도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가 낮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관광자의 경험은 인지부조화를 경험한 후 합리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의식적으로 만족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지만, 재 방문이나 추천의도는 자신의 체험

내용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관광 후 태도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실제 만족의 경우와 거짓 만족의 경우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zursky(1989)는 관광상황에서 장래의 행동의도는 관광지에 대한 기대와 불일치 뿐 아니라 과거의 다른 경험, 사회적 규범 및 만족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만족개념은 재 방문의도나 추천의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재 방문 의도에 관해 살펴보면, 만족경험은 구매 후 태도 뿐 아니라 미래의 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Oliver(1980)는 만족이 구매 전과 구매 후의 태도변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만족-구매 후 태도-구매 후 의도의 연결을 분석하였다.

추천의도는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구전현상으로 연구하여 왔다. 경험에 대한 총체적 평가인 만족과 달리, 구전은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보를 소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된다(황의록 외, 1995). 그러므로 추천은 긍정적 구전의 한 종류이며, 추천의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구전은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하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많은 잠재이용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정적 구전은 해당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전의 결정요소는 만족 또는 불만족이며 많은 연구에서 소비경험에 대한 만족의 결과로서 취급되어 왔다. Swan and Oliver(1985)는 만족과 구전간에 상당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Getty and Thompson(1994)의 연구에서도 추천의도가 만족보다 지각된 전반적 서비스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의 방법과 절차

1.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경주 남산 관광자원의 잠재성과 만족도 평가를 위해 남산 방문객을 무작위 표본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진행 방법은 경주 남산의 포석정, 상선암, 칠불암, 삼릉, 화랑교육원 입구 등 남산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설문자가 직접 설문을 가지고 남산 방문객을 무작위 표집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이 때 설문지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받은 설문자가 설명해 주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자가 설문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였다.

그 구체적 결과는 남자 148명, 여자 134명 총 282명이다. 연령대 별로는 20~30대 113명(40.1%), 40~50대가 130명(46.1%)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혼이 176명, 미혼은 106명이다. 거주지별로는 경주가 123명(43.6%), 경상도가 114명(40.4%)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이 45명(16%)이다.

표집 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4>과 같다. 일반적 배경 중 직업란의 분류에서는 설문 문항에 기타란을 두어 답변하게 한 결과 학생, 주부 등의 반응이 많아(145명) 이를 무직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 표집 대상의 일반적 배경

배경 변인	내 용	N (%)
성별	남	148 (52.5)
	여	134 (47.5)
연령	20세미만	31 (11.0)
	20~30대	113 (40.1)
	40~50대	130 (46.1)
	60대이상	8 (2.8)
결혼여부	기혼	176 (62.4)
	미혼	106 (37.6)
학력	고졸이하	65 (23.0)
	고졸/전문대졸	137 (48.6)
	대졸	77 (27.3)
	대학원졸	2 (.7)
직업	전문직 종사자	30 (10.6)
	자영업	52 (18.5)
	농·어업	35 (12.4)
	도시 근로자	20 (7.1)
	무직	145 (51.4)
거주지	경주	123 (43.6)
	경상도	114 (40.4)
	충청도/ 전라도	12 (4.3)
	수도권	30 (10.6)
	강원도	3 (1.1)
계		282 (100)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들이 경주 남산의 자원에 대해 느끼는 잠재력과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과제로 삼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 활용하였다. 설문 인지도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설문
문에 제시된 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응답자들에게 구하기 위해 답변
항목에 ‘기타’ 항목을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경주 남산에 대한 방문객의 만
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관련 선행연구(손일화, 2000: 곽대진,
1999)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제작 과정에는 관광학과 교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 직업,
연령, 거주지 등을 물었으며, 방문객의 관광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목
적, 동반자, 정보원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주 남산의 자
연·문화 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반부에 이에 따른 문항
을 배치하고, 이의 확인을 통해 후반부에 경주 남산의 관광상품으로의 만
족도를 확인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설문지 내용 구성

구 분	설문 내용	문항번호	계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직업, 거주지	1, 2, 3, 4, 5, 6	6
관광 형태	정보의 원천, 동반자, 방문목적, 교통수단, 지출경비내용, 총 경비	7, 8, 9, 10, 11, 12,	6
관광자원으로서의 만족도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보존여부, 대체코스개발 문화재의 역사적·교육적 가치 자연 경관의 매력성 자연 보존 상태 휴식처·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 남산 보호시설, 접근성, 홍보물, 안내시설 문화재 해설기능 주차장 및 화장실 자원의 국제성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6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	만족도, 재 방문 및 추천 의도	29, 33, 31	3
계			31

3. 연구절차

1) 설문자 사전 교육

설문자 교육은 연구자와 본 연구의 설계에서부터 연구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광학 교수 1인이 실시하였다. 설문 시 응답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과 설문지 활용에 대한 사전교

육이 이루어졌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응답자 반응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남자 20명, 여자 20명 총 40명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은 삭제하였다. 질문의 순서를 응답자가 반응하기 좋은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 용어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일상적 용어로 수정하였다.

3) 본 조사

설문자 사전 교육을 받은 관광학과 학부 4학년 학생 20명, 대학원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5명이 설문 실시자로 참여하였다. 석사과정 학생 1명과 학부 학생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포석정, 상선암, 칠불암, 삼릉, 화랑 교육원 등 남산 주 출입 장소 5곳에서 이루어졌다. 설문 장소 선정은 사전 확인 과정을 거쳐 월 평균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정하였다. 본 조사 실시는 2002년 9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13일 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4.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의 문항 중 개방형 반응을 받은 문항은 응답자의 다양한 반응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화는 연구자와 관광학과 교수 1인, 관광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 1인, 관광학 전공 석사과정 학생 1인, 면접 실시자 2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평균 평정 일치도는 93%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들은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처리되었다.

첫째, 전체 설문 문항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주 남산 방문객의 관광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문항별 반응분포와 그에 따른 차이를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경주 남산의 자연자원·문화자원, 그 외 남산의 자원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서도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넷째, 방문객이 관광상품으로서 경주 남산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도 χ^2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 절차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SPSS 10.0이며, 연구의 검증을 위해 설정한 유의 수준은 $p < .05$ 이다.

IV. 자료 분석

여기에서는 앞의 네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각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였다.

1. 관광형태

방문객들의 관광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의 원천, 동반자, 방문 목적, 교통 수단, 경비 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1) 정보 원천

방문객들이 경주 남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주 남산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제시 문항은 ‘여행사’, ‘가족/친구 등 주변사람’, ‘관광안내책자/팜플렛’, ‘인터넷’, ‘광고’(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기타’항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항에는 고향이다, 집 근처여서, 절에 다닌다, 등으로 16명(5.7%)가 반응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정보의 원천

배경 변인		여행사 N %	주변사람 N %	팜플렛/ 안내책자 N %	인터넷 N %	광고 N %	기 타 N %	계 N %	χ^2
성별	남	2 .7	112 39.7	14 5.0	4 1.4	4 1.4	12 4.3	148 52.5	$\chi^2=.327$ df= 5
	여	2 .7	111 39.4	14 5.0	1 .4	2 .7	4 1.4	134 47.5	
연령	20세미만	0	25 8.9	3 1.1	0	2 .7	1 .4	31 11.0	$\chi^2=.007^{**}$ df= 15
	20~30대	3 1.1	91 32.3	11 3.9	3 1.1	1 .4	4 1.4	113 40.1	
	40~50대	1 .4	102 36.2	13 4.6	2 .7	1 .4	11 3.9	130 46.1	
	60대이상	0	5 1.8	1 .4	0	2 .7	0	8 2.8	
결혼 유무	기혼	3 1.1	137 48.5	16 5.7	2 .7	4 1.4	14 5.0	176 62.4	$\chi^2=.129$ df=10
	미혼	1 .4	87 30.9	11 3.9	3 1.1	2 .7	2 .7	106 37.6	
학력	고졸이하	0	56 19.9	4 1.4	0	3 1.1	2 .7	65 23.0	$\chi^2=.012^*$ df=20
	고졸/ 전문대졸	2 .7	112 39.7	14 5.0	1 .4	3 1.1	6 2.1	138 49.0	
	대졸	2 .7	55 19.5	8 2.8	4 1.4	0	8 2.8	77 27.3	
	대학원졸	0	0	2 .7	0	0	0	2 .7	
직업	전문직	0	22 7.8	5 1.8	0	0	3 1.1	30 10.6	$\chi^2=.160$ df=25
	자영업	2 .7	39 13.8	5 1.8	0	1 .4	5 1.8	52 18.5	
	농·어업	2 .7	28 9.9	5 1.8	0	0	0	35 12.4	
	도시 근로자	0	14 5.0	3 1.1	2 .7	0	1 .4	20 7.1	
	기타	0	120 42.6	10 3.5	3 1.1	5 1.8	7 2.5	145 51.4	
	경주	1 .4	104 36.9	8 2.8	0	0	10 3.5	123 43.6	
거주지	경상도	3 1.1	92 32.6	9 3.2	1 .4	4 1.4	5 1.8	114 40.4	$\chi^2=.061$ df=20
	충청도/ 전라도	0	6 2.1	5 1.8	1 .4	0	0	12 4.3	
	수도권	0	19 6.7	5 1.8	3 1.1	2 .7	1 .4	30 10.6	
	강원도	0	2 .7	1 .4	0	0	0	3 1.1	
계		4 1.4	223 79.1	28 10.0	5 1.8	6 2.1	16 5.7	282 100	

** p< .01 * p<.05

<표 6>에서 정보 원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친구, 가족을 포함 한 ‘주변 사람’에 223명(79.1%)가 반응하였다. 이로써 남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과 ‘학력’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연령’ 변인에서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구간대의 대부분과 ‘학력’ 변인에서 고졸에서 대졸에 이르는 구간대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을 통해 남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반해 그 외의 연령 대 사람들 중 15명(5.3%)는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기타에 응답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기타의 응답 가운데는 ‘집 근처’ ‘고향’ ‘절에 다닌다’ 등이 있었는데 경주에 거주하며, 남산과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산보를 겸해 남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의 결과에서 20~30대 연령층,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배경에서 정보의 원천으로 인터넷에 응답한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향후 남산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동반자

방문객의 동반자 유형을 알기 위하여 “경주 남산은 주로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가족/친구/연인/동료)’, ‘개인적 친목 모임’, ‘업무상 모임’, ‘기타’항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기타’항에는 ‘혼자서’ 라는 응답이 18명(3.2%)가 반응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동반자 유형

배경 변인		친밀 관계 사 람 N %		개 인 적 친목모임 N %		업무상 모 임 N %		기 타 N %		계 N %		χ^2
성별	남	95	33.7	37	13.1	5	1.8	11	3.9	148	52.5	$\chi^2 = .598$ df = 3
	여	96	34.0	27	9.6	4	1.4	7	2.5	134	47.5	
연령	20세미만	23	8.2	5	1.8	3	.7	1	.4	31	11.0	$\chi^2 = .640$ df = 9
	20~30대	76	27.0	26	9.2	3	1.1	8	2.8	113	40.1	
	40~50대	84	29.8	33	11.7	4	1.4	9	3.2	130	46.1	
	60대이상	8	2.8	0		0		0		8	2.8	
결혼 유무	기혼	119	42.2	39	13.8	6	2.1	12	4.3	176	62.4	$\chi^2 = .052$ df = 6
	미혼	72	25.5	25	8.9	3	1.1	6	2.1	106	37.6	
학력	고졸이하	57	20.2	8	2.8	0		0		65	23.0	$\chi^2 = .051$ df = 12
	고졸/ 전문대졸	81	28.8	37	13.1	8	2.8	12	4.3	138	49.0	
	대졸	52	18.4	18	6.4	1	.4	6	2.1	77	27.3	
	대학원졸	1	.4	1	.4	0		0		2	.7	
직업	전문직	22	7.8	6	2.1	0		2	.7	30	10.6	$\chi^2 = .468$ df = 15
	자영업	32	11.4	15	5.3	3	1.1	2	.7	52	18.5	
	농·어업	27	9.6	6	2.1	2	.7	0		35	12.4	
	도시 근로자	12	4.3	5	1.8	2	.7	1	.4	20	7.1	
	기타	98	34.8	32	11.3	2	.7	13	4.6	145	51.4	
	경주	83	29.4	31	11.0	1	.4	8	2.8	123	43.6	
거주지	경상도	76	27.0	24	8.5	6	2.1	8	2.8	114	40.4	$\chi^2 = .141$ df = 12
	충청도/ 전라도	8	2.8	2	.7	2	.7	0		12	4.3	
	수도권	23	8.2	5	1.8	0		2	.7	30	10.6	
	강원도	1	.4	2	.7	0		0		3	1.1	
	계	191	67.7	64	22.7	9	3.2	18	6.4	282	100	

동반자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표 7>에서는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남산은 친밀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결과로 남산이 점차 가족 단위의 휴식공간으로 변해 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방문 목적

경주 남산의 방문 목적을 알기 위하여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등산’, ‘문화재 등 유물답사’, ‘자녀의 교육’, ‘동료들과의 친목’, ‘기타’항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기타항의 답변으로는 ‘집 근처여서’ ‘그냥 놀기 위해’ ‘절에 방문하기 위해’에 16명(5.7%)가 반응하였다.

<표 8> 방문 목적

배경 변인		등 산		유물 답사		자녀의 교 육		동료와 친 목		기 타		계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50	17.7	50	17.7	5	1.8	36	12.8	7	2.5	148	52.5	$\chi^2=.118$ df=4
	여	39	13.8	50	17.7	13	4.6	23	8.2	9	3.2	134	47.5	
연령	20세미만	4	1.4	18	6.4	0		7	2.5	2	.7	31	11.0	$\chi^2=.007^{**}$ df=12
	20~30대	36	12.8	38	13.5	3	1.1	31	11.0	5	1.8	113	40.1	
	40~50대	44	15.6	42	14.9	15	5.3	20	7.1	9	3.2	130	46.1	
	60대이상	5	1.8	2	.7	0		1	.4	0		8	2.8	
결혼 유무	기혼	64	22.6	58	20.6	18	6.4	25	8.9	11	3.9	176	62.4	$\chi^2=.001^{**}$ df=8
	미혼	25	8.9	42	14.9	0		34	12.1	5	1.8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5	5.3	37	13.1	2	.7	6	2.1	5	1.8	65	23.0	$\chi^2=.030^*$ df=16
	고졸/ 전문대졸	40	14.2	42	14.9	10	3.5	38	13.5	8	2.8	138	49.0	
	대졸	32	11.3	21	7.4	6	2.1	15	5.3	3	1.1	77	27.3	
	대학원졸	1	.4	1	.4	0		0		0		2	.7	
직업	전문직	8	2.8	13	4.6	3	1.1	5	1.8	1	.4	30	10.6	$\chi^2=.012^*$ df=20
	자영업	25	8.9	12	4.3	6	2.1	9	3.2	0		52	18.5	
	농·어업	15	5.3	10	3.5	5	1.8	5	1.8	0		35	12.4	
	도시 근로자	3	1.1	8	2.8	1	.4	7	2.5	1	.4	20	7.1	
	기타	39	13.8	56	19.9	3	1.1	33	11.7	14	5.0	145	51.4	
거주지	경주	42	14.9	38	13.5	4	1.4	28	9.9	11	3.9	123	43.6	$\chi^2=.297$ df=16
	경상도	37	13.1	40	14.2	11	3.9	23	8.2	3	1.1	114	40.4	
	충청도/ 전라도	3	1.1	4	1.4	1	.4	4	1.4	0		12	4.3	
	수도권	6	2.1	17	6.0	2	.7	3	1.1	2	.7	30	10.6	
	강원도	1	.4	1	.4	0		1	.4	0		3	1.1	
계		89	31.5	100	35.4	18	6.4	59	21.0	16	5.7	282	100	

** p< .01 **P<.01 * p< .05 * p< .05

<표 8>의 결과에서 ‘연령’ ‘결혼유무’ ‘학력’ ‘직업’의 배경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 변인에서 20~30대는 ‘유물답사’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38명, 13.5%), 40~50대는 ‘등산’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44명, 51.6%). ‘결혼유무’ 변인에서는 ‘기혼’은 ‘등산’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64명 22.6%), ‘미혼’은 ‘유물답사’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42명, 14.9%). ‘학력’ 변인에서는 ‘고졸/전문대졸’에서는 ‘유물답사’에 (42명, 14.9%), ‘대졸’에서는 ‘등산’에 (32명, 11.3%)가 반응했다. ‘직업’ 변인에서는 ‘기타’에 속한 사람들이 유물답사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56명, 19.9%), ‘자영업자’들은 ‘등산’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25명, 8.9%).

이의 결과로 전체적으로는 등산과 유물답사를 위해 남산을 가장 많이 방문함을 알 수 있고, 20~30대는 유물답사, 기혼은 등산, 고졸/전문대졸은 유물답사, 가정주부·학생 등은 유물답사를 위해 남산을 방문함을 알 수 있다.

4) 교통 수단

방문객들이 남산 방문을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주 남산 방문 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제시 항목은 ‘자가용’, ‘버스’, ‘택시’, ‘관광버스’, ‘기타’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기타 항에는 ‘도보’, ‘렌트 카’의 답변이 나왔다(24명 8.5%).

<표 9> 이용교통수단

배경 변인		자가용 N %	버스 N %	택시 N %	관광버스 N %	기 타 N %	계 N %	χ^2
성별	남	101 35.8	24 8.5	2 .7	7 2.5	14 5.0	148 52.5	$\chi^2=.030^*$ df=4
	여	74 26.2	44 15.6	1 .4	5 1.8	10 3.5	134 47.5	
연령	20세미만	4 1.4	21 7.4	0	5 1.8	1 .4	31 11.0	$\chi^2=.100$ df=12
	20~30대	68 24.1	28 9.9	3 1.1	5 1.8	9 3.2	113 40.1	
	40~50대	98 34.8	19 6.7	0	2 .7	11 3.9	130 46.1	
	60대이상	5 1.8	0	0	0	3 1.1	8 2.8	
결혼 유무	기혼	134 47.4	24 8.5	1 .4	3 1.1	14 5.0	176 62.4	$\chi^2=.067$ df=8
	미혼	42 14.9	44 15.6	2 .7	8 2.8	10 3.5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7 9.6	29 10.3	0	2 .7	7 2.5	65 23.0	$\chi^2=.012^*$ df=16
	고졸/ 전문대졸	87 30.9	26 9.2	3 1.1	7 2.5	15 5.3	138 49.0	
	대졸	59 20.9	13 4.6	0	3 1.1	2 .7	77 27.3	
	대학원졸	2 .7	0	0	0	0	2 .7	
직업	전문직	25 8.9	2 .7	1 .4	1 .4	1 .4	30 10.6	$\chi^2=.001^{**}$ df=20
	자영업	42 14.9	2 .7	2 .7	3 1.1	3 1.1	52 18.5	
	농·어업	23 8.2	6 2.1	0	1 .4	5 1.8	35 12.4	
	도시 근로자	13 4.6	4 1.4	0	2 .7	1 .4	20 7.1	
	기타	72 25.5	54 19.1	0	5 1.8	14 5.0	145 51.4	
	경주	76 27.0	31 11.0	0	0	16 5.7	123 43.6	
거주지	경상도	83 29.4	17 6.0	3 1.1	4 1.4	7 2.5	114 40.4	$\chi^2=.052$ df=16
	충청도/ 전라도	5 1.8	4 1.4	0	3 1.1	0	12 4.3	
	수도권	10 3.5	16 5.7	0	4 1.4	0	30 10.6	
	강원도	1 .4	0	0	1 .4	1 .4	3 1.1	
	계	175 62.0	68 24.1	3 1.1	12 4.3	24 8.5	282 100	

* $p < .05$ * $p < .5$ ** $p < .01$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학력’ ‘직업’의 배경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01명, 35.8%), 여자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4명, 15.6%). 고졸에서 대졸에 속하는 구간의 사람들은 주로 자가용

을 이용하고(146명, 54.8%), 고졸이하의 사람들은 주로 버스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29명, 10.3%). 이는 앞의 결과와 연관하여 유추해 볼 때 남자의 학력이 여자 보다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직업’ 변인에서는 대부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함을 알 수 있지만, ‘기타’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54명, 19.1%)가 버스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타’ 직업에 속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정주부’ 혹은 ‘학생’들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9>의 결과에서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남산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은 자가용 혹은 버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남산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가장 많이 쓰는 경비

방문을 위해 지출한 경비 중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 “ 경주 남산 방문을 위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비는 어느 부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남산 방문을 위한 책자나 지도구입’, ‘교통비’, ‘식비’, ‘기타’로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기타항의 답변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간식’으로 34명(11.4%)가 반응하였다.

<표 10> 방문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비

배경 변인		책자/ 지도구입		교통비		식비		기 타		계		χ^2
		N	%	N	%	N	%	N	%	N	%	
성별	남	2	.7	60	21.3	66	23.4	20	7.1	148	52.5	$\chi^2 = .015^*$ df= 3
	여	3	1.1	79	28.0	40	14.2	12	4.3	134	47.5	
연령	20세미만	0		20	7.1	7	2.5	4	1.4	31	11.0	$\chi^2 = .017^*$ df= 9
	20~30대	2	.7	66	23.4	38	13.5	7	2.5	113	40.1	
	40~50대	3	1.1	51	18.1	58	20.6	18	6.4	130	46.1	
	60대이상	0		2	.7	3	1.1	3	1.1	8	2.8	
결혼 유무	기혼	4	1.4	72	25.5	76	27.0	24	8.5	176	62.4	$\chi^2 = .052$ df= 6
	미혼	1	.4	67	23.8	30	10.6	8	2.8	106	37.6	
학력	고졸이하	0		28	9.9	27	9.6	10	3.5	65	23.0	$\chi^2 = .062$ df= 12
	고졸/ 전문대졸	3	1.1	69	24.5	50	17.7	16	5.7	138	49.0	
	대졸	2	.7	42	14.9	27	9.6	6	2.1	77	27.3	
	대학원졸	0		0		2	.7	0		2	.7	
직업	전문직	2	.7	12	4.3	14	5.0	2	.7	30	10.6	$\chi^2 = .055$ df= 15
	자영업	0		19	6.7	28	9.9	5	1.8	52	18.5	
	농·어업	1	.4	11	3.9	20	7.1	3	1.1	35	12.4	
	도시 근로자	1	.4	9	3.2	8	2.8	2	.7	20	7.1	
	기타	1	.4	88	31.2	36	12.8	20	7.1	145	51.4	
거주지	경주	2	.7	34	12.1	65	23.0	22	7.8	123	43.6	$\chi^2 = .083$ df= 12
	경상도	2	.7	68	24.1	36	12.8	8	2.8	114	40.4	
	충청도/ 전라도	0		10	3.5	2	.7	0		12	4.3	
	수도권	1	.4	25	8.9	3	1.1	1	.4	30	10.6	
	강원도	0		2	.7	0		1	.4	3	1.1	
계		5	1.8	139	49.2	106	37.6	32	11.4	282	100	

* $p < .05$ * $p < .05$

<표 10>에서는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식비에(66명, 23.4%), 여자는 교통비(79명, 28%)에, ‘20~30대’는 교통비에(66명, 23.4%), ‘40~50대’는 식비에 (58명, 20.6%)에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는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교통비 혹은 식비에 대부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여자보다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앞의 결과 <표 9>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음주를 한다는 일반적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남자는 자가용 이용에 따른 부대 비용을 방문 경비로 생각하지 않는 결과와 음주에 따른 비용의 지출 결과가 아닌가 유추된다. 20~30대가 상대적으로 40~50대에 비해 교통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위의 결과는 20~30대가 40~50대 보다 이동하는 거리와 경향이 멀고 높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6) 지출 총 경비

방문객들이 남산을 방문하면서 사용하는 총 비용을 알기 위하여 “경주 남산 방문을 위해 지출한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답변을 ‘비용이 들지 않음’ ‘1만원 미만’, ‘1~3만원’, ‘4~6만원’ ‘6만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11> 총 경비

배경 변인		비용이 들지않음		1만원 미만		1~3만원		4~6만원		6만원 이상		계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18	6.4	46	16.3	58	20.6	13	4.6	13	4.6	148	52.5	$\chi^2=.854$ df=6
	여	14	5.0	41	14.5	51	18.0	14	5.0	14	5.0	134	47.5	
연령	20세미만	2	.7	12	4.3	8	2.8	4	1.4	5	1.8	31	11.0	$\chi^2=.071$ df=18
	20~30대	13	4.6	33	11.7	48	17.1	9	3.2	10	3.5	113	40.1	
	40~50대	15	5.3	40	14.2	52	18.4	11	3.9	12	4.3	130	46.1	
	60대이상	2	.7	2	.7	0		4	1.4	0		8	2.8	
결혼 유무	기혼	25	8.9	48	17.0	71	25.1	16	5.7	16	5.7	176	62.4	$\chi^2=.635$ df=12
	미혼	7	2.5	40	14.2	37	13.1	11	3.9	11	3.9	106	37.6	
학력	고졸이하	6	2.1	27	9.6	21	7.4	6	2.1	5	1.8	65	23.0	$\chi^2=.930$ df=24
	고졸/전문대졸	15	5.3	44	15.5	55	19.6	12	4.3	12	4.3	138	49.0	
	대졸	10	3.5	17	6.1	31	11.0	9	3.2	10	3.5	77	27.3	
	대학원졸	1	.4	0		1	.4	0		0		2	.7	
직업	전문직	4	1.4	3	1.1	12	4.3	6	2.1	5	1.8	30	10.6	$\chi^2=.288$ df=30
	자영업	5	1.8	11	3.9	26	9.6	4	1.4	5	1.8	52	18.5	
	농·어업	2	.7	10	3.5	15	5.3	4	1.4	4	1.4	35	12.4	
	도시근로자	2	.7	4	1.4	9	3.2	1	.4	4	1.4	20	7.1	
	기타	19	6.7	60	21.3	45	16.0	12	4.3	9	3.2	145	51.5	
거주지	경주	20	7.1	60	21.3	38	13.5	3	1.1	2	.7	123	43.6	$\chi^2=.255$ df=24
	경상도	8	2.8	22	7.8	59	21.0	17	6.0	8	2.8	114	40.4	
	충청도/전라도	0		3	1.1	3	1.1	2	.7	4	1.4	12	4.3	
	수도권	3	1.1	3	1.1	8	2.8	5	1.8	11	3.9	30	10.6	
	강원도	1	.4	0		0		0		2	.7	3	1.1	
계		32	11.4	87	30.8	109	38.6	27	9.6	27	9.6	282	100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남산 방문을 위해 지출하는 총 경비는 ‘1~3만원’에 가장 많이 반응했다.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남산 방문 총 경비가 3만원 미만에 반응한 것은 남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남산 방문을 위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비용이 들지 않음’에 반응한 경우가 많았다(32명, 11.4%).

2. 경주 남산의 잠재관광자원 만족도 평가

경주 남산의 자원 평가를 위한 항목들로 자연자원, 문화유적을 포함한 문화자원, 기타 사항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남산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주 남산의 관광활성화가 경주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표 12>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배경 변인		매 우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령 다		매 우 그 령 다		계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8	2.8	34	12.1	53	18.8	36	12.8	17	6.0	148	52.5	$\chi^2=.115$ df=4
	여	2	.7	31	11.0	38	13.5	37	13.1	26	9.2	134	47.5	
연령	20세미만	0		3	1.1	13	4.6	13	4.6	2	.7	31	11.0	$\chi^2=.079$ df=12
	20~30대	3	1.1	27	9.6	41	14.5	28	9.9	14	5.0	113	40.1	
	40~50대	7	2.5	34	12.1	36	12.8	28	9.9	25	8.9	130	46.1	
	60대이상	0		1	.4	1	.4	4	1.4	2	.7	8	2.8	
결혼 유무	기혼	7	2.5	42	14.9	55	19.5	42	14.9	30	10.6	176	62.4	$\chi^2=.815$ df=8
	미혼	3	1.1	23	8.2	36	12.8	31	11.0	13	4.6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	.4	14	5.0	18	6.4	19	6.7	13	4.6	65	23.0	$\chi^2=.547$ df=16
	고졸/ 전문대졸	3	1.1	35	12.4	49	17.4	35	12.4	16	5.7	138	49.0	
	대졸	6	2.1	16	5.7	23	8.2	18	6.4	14	5.0	77	27.3	
	대학원졸	0		0		1	.4	1	.4	0		2	.7	
직업	전문직	3	1.1	5	1.8	10	3.5	6	2.1	6	2.1	30	10.6	$\chi^2=.054$ df=20
	자영업	0		13	4.6	15	5.4	14	5.0	10	3.5	52	18.5	
	농·어업	1	.4	5	1.8	6	2.1	11	3.9	12	4.3	35	12.4	
	도시 근로자	2	.7	3	1.1	7	2.5	5	1.8	3	1.1	20	7.1	
	기타	4	1.4	39	13.8	53	18.8	37	13.1	12	4.3	145	51.4	
	경주	4	1.4	30	10.6	49	17.4	26	9.2	14	5.0	123	43.6	
거주지	경상도	3	1.1	26	9.2	27	9.6	36	12.8	22	7.8	114	40.4	$\chi^2=.675$ df=16
	충청도/ 전라도	1	.4	2	.7	4	1.4	3	1.1	2	.7	12	4.3	
	수도권	2	.7	6	2.1	10	3.5	7	2.5	5	1.8	30	10.6	
	강원도	0		1	.4	1	.4	1	.4	0		3	1.1	
계		10	3.5	65	23.1	91	32.3	73	25.9	43	15.2	282	100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전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에 응답자의 반응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응답자의 사고는 깊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남산 주변 상권

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산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2) 남산의 보존 여부

방문객의 남산 보존 여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주 남산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표 13> 남산의 보존 여부

배경 변인		매 우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2 .7	1 .4	6 2.1	59 20.9	80 28.4	148 52.5		$\chi^2=.185$
	여	2 .7	7 2.5	5 1.8	58 20.6	62 22.0	134 47.5		df=4
연령	20세미만	0	0	2 .7	13 4.6	16 5.7	31 11.0		$\chi^2=.830$
	20~30대	3 1.1	2 .7	4 1.4	48 17.0	56 19.9	113 40.1		
	40~50대	1 .4	6 2.1	5 1.8	51 18.1	67 23.8	130 46.1		df=12
	60대이상	0	0	0	5 1.8	3 1.1	8 2.8		
결혼 유무	기혼	4 1.4	7 2.5	6 2.1	70 24.8	89 31.6	176 62.4		$\chi^2=.627$
	미혼	0	1 .4	5 1.8	47 16.7	53 18.8	106 37.6		df=8
학력	고졸이하	1 .4	0	2 .7	30 10.6	32 11.3	65 23.0		$\chi^2=.970$
	고졸/ 전문대졸	2 .7	7 2.5	5 1.8	54 19.1	70 24.9	138 49.0		
	대졸	1 .4	1 .4	4 1.4	32 11.3	39 13.8	77 27.3		df=16
	대학원졸	0	0	0	1 .4	1 .4	2 .7		
직업	전문직	0	0	2 .7	10 3.5	18 6.4	30 10.6		$\chi^2=.152$
	자영업	1 .4	3 1.1	2 .7	15 5.3	31 11.0	52 18.5		
	농·어업	2 .7	3 1.1	3 1.1	11 3.9	16 5.7	35 12.4		
	도시 근로자	0	0	1 .4	9 3.2	10 3.5	20 7.1		df=20
	기타	1 .4	2 .7	3 1.1	72 25.5	67 23.8	145 51.4		
거주지	경주	2 .7	0	5 1.8	58 20.6	58 20.6	123 43.6		$\chi^2=.055$
	경상도	1 .4	7 2.5	4 1.4	42 14.9	60 21.3	114 40.4		
	충청도/ 전라도	1 .4	1 .4	0	5 1.8	5 1.8	12 4.3		df=16
	수도권	0	0	1 .4	10 3.5	19 6.7	30 10.6		
	강원도	0	0	1 .4	2 .7	0	3 1.1		
계		4 1.4	8 2.8	11 3.9	117 41.5	142 50.4	282 100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남산의 보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배경 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남산의 보존에 대해서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높은 보존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남산 보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노

력이 경주시·학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3) 대체 코스 개발

등산로에 대한 방문객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경주 남산의 새로운 대체 코스 개발이 필요하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제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표 14> 대체 코스 개발의 필요성

배경 변인		매 우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11	3.9	16	5.7	29	10.3	51	18.1	41	14.5	148	52.5	$\chi^2=.192$ df=4
	여	13	4.6	8	2.8	40	14.2	40	14.2	33	11.7	134	47.5	
연령	20세미만	1	.4	3	1.1	8	2.8	8	2.8	11	3.9	31	11.0	$\chi^2=.399$ df=12
	20~30대	7	2.5	13	4.6	28	9.9	37	13.1	28	9.9	113	40.1	
	40~50대	16	5.7	7	2.5	30	10.6	42	14.9	35	12.4	130	46.1	
	60대이상	0		1	.4	3	1.1	4	1.4	0		8	2.8	
결혼 유무	기혼	18	6.4	13	4.6	46	16.3	53	18.8	46	16.3	176	62.4	$\chi^2=.083$ df=8
	미혼	6	2.1	11	3.9	23	8.2	38	13.5	28	9.9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	.4	4	1.4	20	7.1	13	4.6	27	9.6	65	23.0	$\chi^2=.082$ df=16
	고졸/ 전문대졸	14	5.0	12	4.3	29	10.3	52	18.4	31	11.0	138	49.0	
	대졸	9	3.2	8	2.8	20	7.1	25	8.9	15	5.3	77	27.3	
	대학원졸	0		0		0		1	.4	1	.4	2	.7	
직업	전문직	5	1.8	0		2	.7	10	3.5	13	4.6	30	10.6	$\chi^2=.056$ df=20
	자영업	6	2.1	4	1.4	11	3.9	15	5.3	16	5.7	52	18.5	
	농·어업	1	.4	5	1.8	10	3.5	9	3.2	10	3.5	35	12.4	
	도시 근로자	5	1.8	1	.4	5	1.8	8	2.8	1	.4	20	7.1	
	기타	7	2.5	14	4.0	41	14.5	49	17.4	34	12.1	145	51.4	
	경주	3	1.1	7	2.5	33	11.7	53	18.8	27	9.6	123	43.6	
거주지	경상도	13	4.6	9	3.2	26	9.2	27	9.6	39	13.8	114	40.4	$\chi^2=.004^{**}$ df=16
	충청도/ 전라도	3	1.1	2	.7	3	1.1	2	.7	2	.7	12	4.3	
	수도권	4	1.4	5	1.8	7	2.5	8	2.8	6	2.1	30	10.6	
	강원도	1	.4	1	.4	0		1	.4	0		3	1.1	
계		24	8.5	24	8.5	69	24.5	91	32.3	74	26.2	282	100	

** p< .01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지’ 배경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경주’ 또는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다 ‘대체 코스개발’에 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근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다 더 자주 남산을 방문한 관계로 현재 개발된 등산 코스를 다양하게 방문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에서 근거리 방문자 유인책으로서의 등산 코스 개발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의 남산 개발의 요구가 서로 상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5>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2	.7	4	1.4	142	50.4	148	52.5	$\chi^2=.509$ df=4
	여	0		6	2.1	128	45.4	134	47.5	
연령	20세미만	0		0		31	11.0	31	11.0	$\chi^2=.111$ df=12
	20~30대	1	.4	7	2.5	105	37.2	113	40.1	
	40~50대	1	.4	2	.7	127	45.0	130	46.1	
	60대이상	0		1	.4	7	2.5	8	2.8	
결혼 유무	기혼	1	.4	4	1.4	171	60.6	176	62.4	$\chi^2=.056$ df=8
	미혼	1	.4	6	2.1	99	35.1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	.4	1	.4	63	22.3	65	23.0	$\chi^2=.924$ df=16
	고졸/ 전문대졸	1	.4	5	1.8	82	46.8	138	49.0	
	대졸	0		4	1.4	73	25.9	77	27.3	
	대학원졸	0		0		2	.7	2	.7	
직업	전문직	0		0		30	10.6	30	10.6	$\chi^2=.165$ df=20
	자영업	0		0		51	18.5	51	18.5	
	농·어업	0		1	.4	34	12.0	34	12.4	
	도시 근로자	1	.4	1	.4	18	6.4	20	7.1	
	기타	1	.4	8	2.8	136	48.2	145	51.4	
거주지	경주	2	.7	3	1.1	118	41.8	123	43.6	$\chi^2=.573$ df=16
	경상도	0		5	1.8	109	38.6	114	40.4	
	충청도/ 전라도	0		0		12	4.3	12	4.3	
	수도권	0		2	.7	28	9.9	30	10.6	
	강원도	0		0		3	1.1	3	1.1	
계		2	.7	10	3.6	270	95.8	282	100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본 설

문에서는 배경 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의 95.8%에 해당하는 270명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반응함으로서 남산 방문객의 거의 대다수는 남산의 문화재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5)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6>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3	1.1	19	6.7	126	44.7	148	52.5	$\chi^2=.721$ df=3
	여	2	.7	12	4.3	120	42.5	134	47.5	
연령	20세미만	0		2	.7	29	10.3	31	11.0	$\chi^2=.052$ df=9
	20~30대	1	.4	18	6.4	94	33.3	113	40.1	
	40~50대	2	.7	11	3.9	117	41.4	130	46.1	
	60대이상	2	.7	0		6	2.2	8	2.8	
결혼 유무	기혼	4	1.4	14	5.0	158	56.0	176	62.4	$\chi^2=.137$ df=6
	미혼	1	.4	17	6.0	88	31.2	106	37.6	
학력	고졸이하	3	1.1	3	1.1	59	21.0	65	23.0	$\chi^2=.491$ df=12
	고졸/ 전문대졸	1	.4	19	6.7	118	41.9	138	49.0	
	대졸	1	.4	9	3.2	67	23.7	77	27.3	
	대학원졸	0		0		2	.7	2	.7	
직업	전문직	0		4	1.4	26	9.2	30	10.6	$\chi^2=.056$ df=15
	자영업	0		3	1.1	49	17.4	52	18.5	
	농·어업	2	.7	2	.7	31	11.0	35	12.4	
	도시 근로자	1	1.4	4	1.4	15	5.4	20	7.1	
	기타	2	.7	18	6.4	125	44.3	145	51.4	
거주지	경주	3	1.1	8	2.8	112	39.7	123	43.6	$\chi^2=.383$ df=12
	경상도	1	.4	15	5.3	98	34.8	114	40.4	
	충청도/ 전라도	0		2	.7	10	3.5	12	4.3	
	수도권	1	.4	5	1.8	24	8.5	30	10.6	
	강원도	0		1	.4	2	.7	3	1.1	
계		5	1.8	31	11.0	246	87.2	282	100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남산 방문객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 본 설문에서는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배경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246명, 87.2%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반응함으로서 남산 방문객의 거의 대부분은 남산이 가진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의 결과 <표 15>에서 확인한 남산 방문객들의 남산 문화재에 대한 높은 역사적 가치 평가와 함께 주목하여야 할 결과라고 여겨진다.

남산 방문객 대부분이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남산의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남산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산의 개발과 보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6) 자연 경관의 매력도

경주 남산의 자연자원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하여 “경주 남산의 자연경관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7> 자연경관의 매력도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2	.7	28	9.9	118	41.8	148	52.5	$\chi^2=.332$ df=4
	여	7	2.5	23	8.2	104	36.9	134	47.5	
연령	20세미만	1	.4	5	1.8	25	8.8	31	11.0	$\chi^2=.016*$ df=12
	20~30대	2	.7	34	12.1	77	27.3	113	40.1	
	40~50대	6	2.1	10	3.5	114	40.4	130	46.1	
	60대이상	0		2	.7	6	2.2	8	2.8	
결혼 유무	기혼	6	2.1	23	8.2	147	52.1	176	62.4	$\chi^2=.088$ df=8
	미혼	3	1.1	28	9.9	75	26.6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	.7	15	5.3	48	17.0	65	23.0	$\chi^2=.649$ df=16
	고졸/ 전문대졸	6	2.1	25	8.9	107	38.0	138	49.0	
	대졸	1	.4	10	3.5	66	23.4	77	27.3	
	대학원졸	0		1	.4	1	.4	2	.7	
직업	전문직	0		7	2.5	23	8.2	30	10.6	$\chi^2=.103$ df=20
	자영업	3	1.1	6	2.2	43	15.2	52	18.5	
	농·어업	0		7	2.5	28	10.0	35	12.4	
	도시 근로자	1	.4	1	.4	18	6.4	20	7.1	
	기타	5	1.8	30	10.6	110	39.1	145	51.4	
거주지	경주	2	.7	22	7.8	99	35.1	123	43.6	$\chi^2=.055$ df=16
	경상도	5	1.8	19	6.7	90	31.9	114	40.4	
	충청도/ 전라도	1	.4	4	1.4	7	2.5	12	4.3	
	수도권	1	.4	6	2.1	23	8.2	30	10.6	
	강원도	0		0		3	1.1	3	1.1	
계		3	3.2	51	18.1	222	78.7	282	100	

* $p < .05$

남산 방문객들이 가지는 남산의 자연 경관에 대한 매력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 설문은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별 배경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40~50대의 응답자들이 ‘그렇다’에 많이 반응함으로서(114명, 40.4%) 중·장년층 연령대의 사람들이 남산의 자연 경관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22명, 78.7%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반응한 <표 17>의 결과로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남산이 가진 자연 경관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남산 개발의 문제가 논의에 붙여졌을 때 남산을 어떻게 개발하여야 하는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겨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여겨진다.

7) 자연자원의 보존 상태

자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방문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주 남산 자연자원의 보존상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8> 자연자원의 보존상태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59	20.9	44	15.6	45	15.9	148	52.5	$\chi^2=.234$ df=4
	여	57	20.2	46	16.3	31	11.0	134	47.5	
연령	20세미만	6	2.1	15	5.3	10	3.6	31	11.0	$\chi^2=.202$ df=12
	20~30대	46	16.3	34	12.1	33	11.7	113	40.1	
	40~50대	60	21.3	38	13.5	32	11.3	130	46.1	
	60대이상	4	1.5	3	1.1	1	.4	8	2.8	
결혼 유무	기혼	79	28.0	54	19.1	43	15.3	176	62.4	$\chi^2=.050*$ df=8
	미혼	37	13.1	36	12.8	33	11.7	106	37.4	
학력	고졸이하	21	7.4	28	9.9	16	5.6	65	23.0	$\chi^2=.032*$ df=16
	고졸/ 전문대졸	67	23.8	34	12.1	37	13.1	138	49.0	
	대졸	28	9.9	27	9.6	22	7.8	77	27.3	
	대학원졸	0		1	.4	1	.4	2	.7	
직업	전문직	7	2.5	13	4.6	10	3.5	30	10.6	$\chi^2=.182$ df=20
	자영업	28	9.9	8	2.8	16	5.7	52	18.5	
	농·어업	14	4.9	14	5.0	7	2.5	35	12.4	
	도시 근로자	12	4.3	2	.7	6	2.2	20	7.1	
	기타	55	19.5	53	18.8	37	13.1	145	51.4	
거주지	경주	56	19.8	41	14.5	26	9.3	123	43.6	$\chi^2=.056$ df=16
	경상도	42	14.9	36	12.8	36	12.8	114	40.4	
	충청도/ 전라도	5	1.8	6	2.1	1	.4	12	4.3	
	수도권	10	3.6	7	2.5	13	4.6	30	10.6	
	강원도	3	1.1	0		0		3	1.1	
계		116	41.1	90	31.9	76	27.0	282	100	

* $p < .05$ * $p < .05$

남산의 자연 보존 상태에 대한 방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 설문에서는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유무’와 ‘학력’ 별 배경 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혼자들은 남산의 자연 보존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지 않다’에 79명, 28.0%가 반응을 보여 다른 반응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혼자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 ‘고졸/전문대졸’ 배경 변인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에 67명, 23.8%의 반응을 보여 다른 반응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다른 학력 변인을 가진 집단들은 비교적 고른 반응을 나타내었다.

본 설문의 결과로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고졸·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학력 변인을 가진 사람들 보다 남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휴식처·문화공간으로의 만족도

경주 남산이 휴식·문화공간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주 남산을 휴식처·문화공간으로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9> 휴식처 · 문화공간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34	12.1	50	17.7	64	22.7	148	52.5	$\chi^2=.515$ df=4
	여	24	8.5	51	18.1	59	20.9	134	47.5	
연령	20세미만	5	1.8	14	5.0	12	4.3	31	11.0	$\chi^2=.459$ df=12
	20~30대	26	9.3	33	11.7	54	19.2	113	40.1	
	40~50대	25	8.8	50	17.7	55	19.5	130	46.1	
	60대이상	2	.7	4	1.4	2	.7	8	2.8	
결혼 유무	기혼	38	13.5	62	21.9	76	27.0	176	62.4	$\chi^2=.812$ df=8
	미혼	20	7.1	39	13.8	47	16.7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2	4.3	26	9.2	27	9.6	65	23.0	$\chi^2=.055$ df=16
	고졸/ 전문대졸	25	8.9	57	20.2	56	19.9	138	49.0	
	대졸	21	7.5	17	6.0	39	13.9	77	27.3	
	대학원졸	0		1	.4	1	.4	2	.7	
직업	전문직	4	1.4	9	3.2	17	6.0	30	10.6	$\chi^2=.291$ df=20
	자영업	13	4.6	17	6.1	22	7.8	52	18.5	
	농·어업	2	.7	17	6.0	16	5.7	35	12.4	
	도시 근로자	3	1.1	8	2.8	9	3.2	20	7.1	
	기타	36	1.1	50	17.7	59	20.9	145	51.4	
거주지	경주	25	8.8	45	16.0	53	18.8	123	43.6	$\chi^2=.496$ df=16
	경상도	23	8.1	41	14.5	50	17.7	114	40.4	
	충청도/ 전라도	0		7	2.5	5	1.8	12	4.3	
	수도권	10	3.5	8	2.8	12	4.2	30	10.6	
	강원도	0		0		3	1.1	3	1.1	
계		58	20.6	101	35.8	123	43.6	282	100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휴식처 또는 문화공간으로서 남산이 가

지는 특성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에서는 배경 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23명, 43.6%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101명, 35.8%의 응답자가 ‘보통이다’에 58명, 20.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총 응답자의 20.6%에 이르는 사람들이 남산이 휴식처 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고 반응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현장 연구와 앞의 <표 19>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남산은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한 1차적 휴식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테마를 가지고 문화재와 잘 어울려 조성된 문화 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에 반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산 방문 시 자연 경관에서 느끼는 감동을 이어줄 훌륭한 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표 15>와 <표 16>의 결과에서 방문객들은 남산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성과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9) 경주 남산 보호시설

남산의 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 보호시설(생태계보호/쓰레기처리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0> 남산보호시설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57 20.3	48 17.0	43 15.3	148 52.5	$\chi^2=.555$ df=4
	여	46 16.3	49 17.4	39 13.8	134 47.5	
연령	20세미만	4 1.5	14 5.0	13 4.7	31 11.0	$\chi^2=.017*$ df=12
	20~30대	36 12.8	38 13.5	39 13.8	113 40.1	
	40~50대	58 20.5	42 14.9	30 10.6	130 46.1	
	60대이상	5 1.8	3 1.1	0	8 2.8	
결혼 유무	기혼	74 26.3	56 19.9	46 16.3	176 62.4	$\chi^2=.237$ df=8
	미혼	29 10.3	41 14.5	36 12.8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2 7.8	25 8.9	18 6.4	65 23.0	$\chi^2=.149$ df=16
	고졸/ 전문대졸	56 19.8	43 15.2	39 13.9	138 49.0	
	대졸	24 8.5	29 10.3	24 8.5	77 27.3	
	대학원졸	1 .4	0	1 .4	2 .7	
직업	전문직	9 3.2	12 4.3	9 3.2	30 10.6	$\chi^2=.059$ df=20
	자영업	26 9.3	9 3.2	17 6.0	52 18.5	
	농·어업	11 3.9	11 3.9	13 4.6	35 12.4	
	도시 근로자	7 2.5	7 2.5	6 2.2	20 7.1	
	기타	50 17.8	58 20.6	37 13.1	145 51.4	
거주지	경주	56 19.9	39 13.8	28 9.9	123 43.6	$\chi^2=.098$ df=16
	경상도	37 13.1	42 14.9	35 12.5	114 40.4	
	충청도/ 전라도	0	8 2.8	4 1.4	12 4.3	
	수도권	9 3.2	7 2.5	14 4.9	30 10.6	
	강원도	1 .4	1 .4	1 .4	3 1.1	
계		103 36.5	97 34.4	82 29.1	282 100	

* $p<.05$

방문객들이 느끼는 남산 보호 시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본 설문은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 배경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30대 응답자는 ‘보통이다’에 가장 많이 반응한 반면(38명, 13.5%), 40~50대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에 가장 많이 반응했다(58명, 20.5%). 이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남산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 이하에 200명, 70.9%가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남산 보호에 관심이 깊었으며 남산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 단체 혹은 중앙 정부의 남산보호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시설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0) 경주 남산의 접근 성

경주 남산에 대한 접근 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의 접근(교통편/진입도로)이 편리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1> 경주 남산의 접근 성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28	10.0	39	13.8	81	28.7	148	52.5	$\chi^2=.201$ df=4
	여	31	11.0	47	16.7	56	19.8	134	47.5	
연령	20세미만	9	4.2	11	3.9	11	3.9	31	11.0	$\chi^2=.079$ df=12
	20~30대	25	8.8	42	14.9	46	16.3	113	40.1	
	40~50대	24	8.5	31	11.0	75	26.6	130	46.1	
	60대이상	1	.4	2	.7	5	1.8	8	2.8	
결혼	기혼	33	11.7	43	15.2	100	35.5	176	62.4	$\chi^2=.009^{**}$ df=8
유무	미혼	26	9.3	43	15.2	37	13.1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9	10.3	17	6.0	19	6.7	65	23.0	$\chi^2=.062$ df=16
	고졸/ 전문대졸	22	7.8	46	16.3	70	24.8	138	49.0	
	대졸	8	2.8	23	8.2	46	16.3	77	27.3	
	대학원졸	0		0		2	.7	2	.7	
직업	전문직	7	2.5	9	3.2	14	5.0	30	10.6	$\chi^2=.003^{**}$ df=20
	자영업	11	3.9	8	2.8	33	11.6	52	18.5	
	농·어업	9	3.2	8	2.8	18	6.4	35	12.4	
	도시 근로자	2	.7	4	1.4	14	5.0	20	7.1	
	기타	30	10.7	57	20.2	58	20.6	145	51.4	
거주지	경주	17	6.0	44	15.6	62	22.0	123	43.6	$\chi^2=.228$ df=16
	경상도	29	10.3	26	9.2	59	20.9	114	40.4	
	충청도/ 전라도	4	1.5	5	1.8	3	1.1	12	4.3	
	수도권	9	3.2	11	3.9	10	3.5	30	10.6	
	강원도	0		0		3	1.1	3	1.1	
계		59	21.0	86	30.4	137	48.6	282	100	

** $p < .01$ ** $p < .01$

남산의 접근성에 대해서 확인한 <표 21>에서는 ‘결혼유무’ 및 ‘직업’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혼자들은 ‘그렇다’에 가장 많은 반응(100명, 35.5%)를 보인 반면, 미혼자들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43명, 15.2%). 기타 직업 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렇다’와 ‘보통이다’에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각 58명 20.6%, 57명 20.2%). 이의 결과는 앞서 결과 <표 9>, <표 4>에서 확인하였듯이 기혼자들이 미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산 접근 수단으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는 개인적 특성과 기타 직업 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과 주부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근거리에서 남산을 찾는다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는 남산의 접근성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산이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근교 산이고 울산·부산 방향의 국도에 접해 있다는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1) 경주 남산의 홍보 물

경주 남산의 홍보 물이 이용하기에 용이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의 홍보 물(팸플렛/등산지도)이 이용에 편리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2> 경주 남산의 홍보 물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59	20.9	64	22.7	25	8.8	148	52.5	$\chi^2=.583$ df=4
	여	51	18.1	60	21.3	23	8.1	134	47.5	
연령	20세미만	14	4.9	14	5.0	3	1.1	31	11.0	$\chi^2=.586$ df=12
	20~30대	45	15.9	47	16.7	21	7.4	113	40.1	
	40~50대	49	17.4	58	20.6	23	8.1	130	46.1	
	60대이상	2	.7	5	1.8	1	.4	8	2.8	
결혼 유무	기혼	65	23.1	82	29.1	29	10.2	176	62.4	$\chi^2=.787$ df=8
	미혼	45	16.0	42	14.9	19	6.7	106	37.6	
학력	고졸이하	30	10.6	28	9.9	7	2.5	65	23.0	$\chi^2=.084$ df=16
	고졸/ 전문대졸	54	19.2	58	20.6	26	9.2	138	49.0	
	대졸	25	8.9	38	13.5	14	5.0	77	27.3	
	대학원졸	1	.4	0		1	.4	2	.7	
직업	전문직	14	5.0	10	3.5	6	2.1	30	10.6	$\chi^2=.079$ df=20
	자영업	17	6.0	27	9.6	8	2.8	52	18.5	
	농·어업	14	5.0	15	5.3	6	2.1	35	12.4	
	도시 근로자	4	1.4	10	3.5	6	2.1	20	7.1	
	기타	61	21.6	62	22.0	22	7.8	145	51.4	
거주지	경주	48	17.0	59	20.9	16	5.7	123	43.6	$\chi^2=.099$ df=16
	경상도	45	15.9	47	16.7	22	7.8	114	40.4	
	충청도/ 전라도	4	1.5	4	1.4	4	1.4	12	4.3	
	수도권	13	4.6	13	4.6	4	1.4	30	10.6	
	강원도	0		1	.4	2	.7	3	1.1	
계		110	39.0	124	44.0	48	17.0	282	100	

<표 2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남산 방문자들은 남산의 홍보 물에 대

해서는 배경 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남산 방문자들은 현재의 남산 홍보물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결과는 남산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남산 주 출입구 어디에도 남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만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인근 상점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남산 관련 지도를 판매하는 것과 곳곳에 남산의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제 혹은 시멘트 재질의 안내문 정도가 전부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릴 만한 남산의 홍보 물 제작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남산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날의 관점에 재조명하여 효과적으로 남산을 홍보하는 것은 남산 방문자들의 가슴에 남산의 자랑스러움을 각인 시켜 남산 사랑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주시,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단체, 학자 등 남산에 대한 애정을 가진 전체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경주 남산의 안내시설

경주 남산을 이용하는데 있어 안내시설은 적절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의 안내시설(안내소/표지판)은 편리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3> 경주 남산의 안내시설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51	18.0	66	23.4	31	11.0	148	52.5	$\chi^2=.567$ df=4
	여	46	16.7	68	24.1	19	6.7	134	47.5	
연령	20세미만	12	4.2	13	4.6	6	2.1	31	11.0	$\chi^2=.252$ df=12
	20~30대	34	12.1	60	21.3	19	6.7	113	40.1	
	40~50대	49	17.4	57	20.2	24	8.5	130	46.1	
	60대이상	3	1.1	4	1.4	1	.4	8	2.8	
결혼 유무	기혼	64	22.7	80	28.4	32	11.3	176	62.4	$\chi^2=.306$ df=8
	미혼	34	12.1	54	19.1	18	6.4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7	9.6	29	10.3	9	3.2	65	23.0	$\chi^2=.053$ df=16
	고졸/ 전문대졸	42	14.9	67	23.8	29	10.3	138	49.0	
	대졸	28	9.9	37	13.1	12	4.2	77	27.3	
	대학원졸	1	.4	1	.4	0		2	.7	
직업	전문직	11	3.9	13	4.6	6	2.1	30	10.6	$\chi^2=.264$ df=20
	자영업	15	5.3	20	7.1	17	6.1	52	18.5	
	농·어업	15	5.3	17	6.0	3	1.1	35	12.4	
	도시 근로자	7	2.5	8	2.8	5	1.8	20	7.1	
	기타	50	17.7	76	27.0	19	6.8	145	51.4	
거주지	경주	46	16.3	62	22.0	15	5.4	123	43.6	$\chi^2=.052$ df=16
	경상도	33	11.7	57	20.2	24	8.5	114	40.4	
	충청도/ 전라도	5	1.8	4	1.4	3	1.1	12	4.3	
	수도권	14	4.9	10	3.5	6	2.1	30	10.6	
	강원도	0		1	.4	2	.7	3	1.1	
계		98	34.8	134	47.5	50	17.7	282	100	

경주 남산의 안내시설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 23>에서는 배경

변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반응자 수 232명, 82.3%가 ‘보통이다’ 이하에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현재의 안내시설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22>의 방문객들의 홍보 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결과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13) 문화재의 해설기능

문화재를 접하는데 있어서 현재 남산의 문화재 해설 장치가 남산 방문자들의 문화재 이해 증진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주 남산의 문화재 해설기능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4> 문화재의 해설기능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48	17.0	72	25.5	28	9.9	148	52.5	$\chi^2=.975$ df=4
	여	45	16.0	67	23.8	22	7.8	134	47.5	
연령	20세미만	11	3.9	13	4.6	7	2.5	31	11.0	$\chi^2=.828$ df=12
	20~30대	33	11.7	57	20.2	23	8.1	113	40.1	
	40~50대	45	16.0	66	23.4	19	6.8	130	46.1	
	60대이상	4	1.4	3	1.1	1	.4	8	2.8	
결혼 유무	기혼	61	21.6	87	30.9	28	9.9	176	62.4	$\chi^2=.821$ df=8
	미혼	32	11.4	52	18.4	22	7.8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0	7.1	35	12.4	10	3.5	65	23.0	$\chi^2=.065$ df=16
	고졸/ 전문대졸	41	14.5	68	24.1	29	10.3	138	49.0	
	대졸	31	11.0	36	12.8	10	3.5	77	27.3	
	대학원졸	1	.4	0		1	.4	2	.7	
직업	전문직	9	3.2	16	5.7	5	1.8	30	10.6	$\chi^2=.936$ df=20
	자영업	15	5.4	25	8.9	12	4.2	52	18.5	
	농·어업	13	4.7	17	6.0	5	1.8	35	12.4	
	도시 근로자	6	2.2	11	3.9	3	1.1	20	7.1	
	기타	50	17.7	70	24.8	25	8.9	145	51.4	
거주지	경주	45	15.9	59	20.9	19	6.7	123	43.6	$\chi^2=.056$ df=16
	경상도	29	10.3	64	22.7	21	7.4	114	40.4	
	충청도/ 전라도	4	1.5	6	2.1	2	.7	12	4.3	
	수도권	14	4.9	9	3.2	7	2.5	30	10.6	
	강원도	1	.4	1	.4	1	.4	3	1.1	
계		93	33.0	139	49.3	50	17.7	282	100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남산 문화재 해설 장치의 기능을

확인한 설문에서는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남산의 문화재 해설 장치의 기능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이하에 232명, 82.3%가 반응함으로써 현재 남산의 문화재 해설장치가 방문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지식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현장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남산 문화재 해설 장치는 대부분 철재 입간판 형식으로 간단히 그 문화재의 생성 연도, 시대 배경, 위치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남산 방문자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방문자들이 남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형태의 해설 장치보다는 더 폭 넓은 문화재 생성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재와 문화재간의 관련성,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4) 주차장 수용력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차장 수용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5> 주차장 수용력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25	18.4	57	20.2	39	13.8	148	52.5	$\chi^2=.200$ df=4
	여	39	13.8	56	19.9	39	13.8	134	47.5	
연령	20세미만	4	1.4	20	7.1	7	2.5	31	11.0	$\chi^2=.172$ df=12
	20~30대	42	14.9	41	14.5	30	10.6	113	40.1	
	40~50대	42	14.9	48	17.0	40	14.2	130	46.1	
	60대이상	3	1.1	4	1.4	1	.4	8	2.8	
결혼 유무	기혼	60	21.2	63	22.4	53	18.8	176	62.4	$\chi^2=.491$ df=8
	미혼	31	11.0	50	17.7	25	8.9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5	5.3	38	13.5	12	4.3	65	23.0	$\chi^2=.052$ df=16
	고졸/ 전문대졸	39	13.8	53	18.8	46	16.4	138	49.0	
	대졸	36	12.7	22	7.8	19	6.8	77	27.3	
	대학원졸	1	.4	0		1	.4	2	.7	
직업	전문직	7	2.5	14	5.0	9	3.2	30	10.6	$\chi^2=.832$ df=20
	자영업	20	7.2	18	6.4	14	4.9	52	18.5	
	농·어업	12	4.3	12	4.3	11	3.9	35	12.4	
	도시 근로자	4	1.4	7	2.5	9	3.2	20	7.1	
	기타	48	17.0	62	22.0	35	12.5	145	51.4	
거주지	경주	43	15.2	46	16.3	34	12.1	123	43.6	$\chi^2=.364$ df=16
	경상도	34	12.1	45	16.0	35	12.5	114	40.4	
	충청도/ 전라도	4	1.4	5	1.8	3	1.1	12	4.3	
	수도권	9	3.2	15	5.3	6	2.1	30	10.6	
	강원도	1	.4	2	.7	0		3	1.1	
계		91	32.2	113	40.1	78	27.7	282	100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지만(113명, 40.1%),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에도 고른 반응을 나타내었다. 현장 연구의 일환으로 남산 주 접근로의 주차장 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포석정, 화랑교육원 앞 등의 대형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삼릉 앞 등 소형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자가용을 이용하며 남산에 접근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주차장 이용의 불편으로 여겨질 것이다. 본 설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응한 사람의 대부분은 자가용 이용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15) 화장실 청결 상태와 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수는 이용에 편리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6>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수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56 19.9	60 21.3	32 11.4	148 52.5	$\chi^2=.300$ df=4
	여	61 21.6	45 16.0	28 9.9	134 47.5	
연령	20세미만	18 6.4	12 4.3	1 .4	31 11.0	$\chi^2=.059$ df=12
	20~30대	48 17.1	48 17.0	17 6.1	113 40.1	
	40~50대	49 17.3	42 14.9	39 13.8	130 46.1	
	60대이상	2 .7	3 1.1	3 1.1	8 2.8	
결혼 유무	기혼	64 22.7	64 22.7	48 17.0	176 62.4	$\chi^2=.059$ df=8
	미혼	53 18.8	41 14.5	12 4.2	106 37.6	
학력	고졸이하	31 11.0	28 9.9	6 2.1	65 23.0	$\chi^2=.058$ df=16
	고졸/ 전문대졸	54 19.2	42 14.9	42 14.9	138 49.0	
	대졸	31 11.0	34 12.1	12 4.2	77 27.3	
	대학원졸	1 .4	1 .4	0	2 .7	
직업	전문직	7 2.5	15 5.3	8 2.9	30 10.6	$\chi^2=.052$ df=20
	자영업	18 6.4	23 8.2	11 3.9	52 18.5	
	농·어업	17 6.0	10 3.5	8 2.9	35 12.4	
	도시 근로자	4 1.5	7 2.5	9 3.2	20 7.1	
	기타	71 25.2	50 17.7	24 8.5	145 51.4	
거주지	경주	44 15.6	47 16.7	32 11.4	123 43.6	$\chi^2=.122$ df=16
	경상도	52 18.4	41 14.5	21 7.5	114 40.4	
	충청도/ 전라도	4 1.4	4 1.4	4 1.4	12 4.3	
	수도권	16 5.7	12 4.3	2 .7	30 10.6	
	강원도	1 .4	1 .4	1 .4	3 1.1	
계		117 41.5	105 37.3	60 21.2	282 100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 결과는 <표 26>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통이다’이하 222명, 78.8%가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객들은 배경 변인과 상관없이 화장실 사용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6) 경주 남산의 국제성

경주 남산을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원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 “경주 남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답변 문항은 자연자원, 역사유적(문화재), 다른 문화재와의 연계코스개발, 등산코스, 기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시설물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2명 0.7%가 응답하였다.

<표 27> 남산의 국제성

배경 변인		자연 자원		역사 유적		다른 문화재 와연계		등산 코스		기타		계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	11	3.9	67	23.8	63	22.3	6	2.1	1	.4	148	52.5	$\chi^2=.425$ df=4
	여	13	4.6	68	24.1	43	15.2	9	3.2	1	.4	134	47.5	
연령	20세미만	2	.7	15	5.3	13	4.6	1	.4	0		31	11.0	$\chi^2=.129$ df=12
	20~30대	10	3.5	60	21.3	31	11.0	10	3.5	2	.7	113	40.1	
	40~50대	12	4.3	54	19.1	60	21.3	4	1.4	0		130	46.1	
	60대이상	0		6	2.1	2	.7	0		0		8	2.8	
결혼 유무	기혼	18	6.4	76	27.0	74	26.2	8	2.8	0		176	62.4	$\chi^2=.009^{**}$ df=8
	미혼	6	2.1	59	20.9	32	11.3	7	2.5	2	.7	106	37.6	
학력	고졸이하	7	2.5	33	11.7	25	8.9	0		0		65	23.0	$\chi^2=.749$ df=16
	고졸/ 전문대졸	12	4.3	64	22.7	53	18.8	7	2.5	2	.7	138	49.0	
	대졸	5	1.8	37	13.1	27	9.6	8	2.8	0		77	27.3	
	대학원졸	0		1	.4	1	.4	0		0		2	.7	
직업	전문직	1	.4	12	4.3	16	5.7	1	.4	0		30	10.6	$\chi^2=.585$ df=20
	자영업	7	2.5	20	7.1	22	7.8	3	1.1	0		52	18.5	
	농·어업	5	1.8	15	5.3	12	4.3	3	1.1	0		35	12.4	
	도시 근로자	3	1.1	12	4.3	5	1.8	0		0		20	7.1	
	기타	8	2.8	76	27.0	51	18.1	8	2.8	2	.7	145	51.4	
	경주	7	2.5	59	20.9	50	17.7	7	2.5	0		123	43.6	
거주지	경상도	13	4.6	50	17.7	43	15.2	7	2.5	1	.4	114	40.4	$\chi^2=.057$ df=16
	충청도/ 전라도	3	1.1	6	2.1	3	1.1	0		0		12	4.3	
	수도권	1	.4	18	6.4	10	3.5	1	.4	0		30	10.6	
	강원도	0		2	.7	0		0		1	.4	3	1.1	
계		24	8.5	135	47.9	106	37.6	15	5.3	2	.7	282	100	

** p< .01

남산을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본 문항에서는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역사유적과 다른 문화재와의 연계를 부각시키는 것이 남산을 국제적 명소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반응

을 보였다. 다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남산의 자연자원의 부각이 남산의 국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극소수(2명, 0.7%)만이 ‘등산 코스 개발’을 남산의 국제성 확보에 필요한 요소라고 반응한 것으로 봐서 남산 방문자의 대다수는 남산을 상업화하는 것 보다는 역사유적 또는 다른 문화재와 연관을 통해서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의 개발이 남산의 국제성 확보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 평가

관광상품으로서 경주 남산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항목들로 만족도, 재방문, 추천 의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경주 남산의 만족도

경주 남산을 방문한 후 느끼는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주 남산의 방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8> 경주 남산의 만족도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13	4.7	58	20.6	77	27.3	148	52.5	$\chi^2=.860$ df=4
	여	11	3.9	58	20.6	65	23.0	134	47.5	
연령	20세미만	0		18	6.4	13	4.7	31	11.0	$\chi^2=.223$ df=12
	20~30대	13	4.6	47	16.7	53	18.8	113	40.1	
	40~50대	10	3.5	47	16.7	73	25.9	130	46.1	
	60대이상	1	.4	4	1.4	3	1.1	8	2.8	
결혼 유무	기혼	14	5.0	64	22.7	98	34.7	176	62.4	$\chi^2=.270$ df=8
	미혼	10	3.5	52	18.4	44	15.6	106	37.6	
학력	고졸이하	1	.4	30	10.6	34	12.1	65	23.0	$\chi^2=.198$ df=16
	고졸/ 전문대졸	17	6.1	61	21.6	60	21.3	138	49.0	
	대졸	6	2.1	23	8.2	48	17.0	77	27.3	
	대학원졸	0		2	.7	0		2	.7	
직업	전문직	3	1.1	14	5.0	13	4.7	30	10.6	$\chi^2=.059$ df=20
	자영업	5	1.8	18	6.4	29	10.3	52	18.5	
	농·어업	3	1.1	11	3.9	21	7.4	35	12.4	
	도시 근로자	2	.7	11	3.9	7	2.5	20	7.1	
	기타	11	3.9	62	22.0	72	25.5	145	51.4	
거주지	경주	7	2.5	50	17.7	66	23.4	123	43.6	$\chi^2=.017^{**}$ df=16
	경상도	11	3.9	46	16.3	57	20.2	114	40.4	
	충청도/ 전라도	1	.4	5	1.8	6	2.1	12	4.3	
	수도권	3	1.1	14	5.0	13	4.6	30	10.6	
	강원도	2	.7	1	.4	0		3	1.1	
계		24	8.5	116	41.2	142	50.3	282	100	

* $p < .05$

경주 남산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 설문지 결과에서는 <표 28>에서 나타나듯이 ‘거주지’별 배경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근거리 거주자일수록 남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표 28>의 결과로 남산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지역 민들에 의해 더욱 사랑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58명, 51.5%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의 만족에 반응함으로써 대부분의 남산 방문자들은 남산 방문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 방문 의사

재 방문 의사를 묻기 위하여 “경주 남산을 다시 방문 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29> 재 방문 의사

배경 요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6	2.2	21	7.4	121	42.9	148	52.5	$\chi^2=.116$ df=4
	여	9	3.2	34	12.1	91	32.3	134	47.5	
연령	20세미만	1	.4	11	3.9	19	6.7	31	11.0	$\chi^2=.062$ df=12
	20~30대	8	2.9	29	10.3	76	27.0	113	40.1	
	40~50대	6	2.1	14	5.0	110	39.0	130	46.1	
	60대이상	0		1	.4	7	2.5	8	2.8	
결혼 유무	기혼	7	2.5	28	9.9	141	50.0	176	62.4	$\chi^2=.056$ df=8
	미혼	8	2.9	27	9.6	71	25.2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	.7	10	3.5	53	18.8	65	23.0	$\chi^2=.436$ df=16
	고졸/ 전문대졸	9	3.2	31	11.0	98	34.8	138	49.0	
	대졸	4	1.4	14	5.0	59	20.9	77	27.3	
	대학원졸	0		0		2	.7	2	.7	
직업	전문직	4	1.4	5	1.8	21	7.5	30	10.6	$\chi^2=.102$ df=20
	자영업	0		4	1.4	48	17.0	52	18.5	
	농·어업	1	.4	7	2.5	27	9.5	35	12.4	
	도시 근로자	2	.7	4	1.4	14	5.0	20	7.1	
	기타	8	2.8	35	12.4	102	36.1	145	51.4	
거주지	경주	4	1.4	18	6.4	101	35.9	123	43.6	$\chi^2=.309$ df=16
	경상도	7	2.5	26	9.2	81	28.7	114	40.4	
	충청도/ 전라도	0		4	1.4	8	2.9	12	4.3	
	수도권	3	1.1	7	2.5	20	7.1	30	10.6	
	강원도	1	.4	0		2	.7	3	1.1	
계		15	5.3	55	19.5	212	75.2	282	100	

경주 남산의 재 방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 배경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자의 대다수(212명, 75.2%)가 재 방문 의사가 있다고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 결과는 <표 28>에서 확인한 높은 남산 방문자의 만족도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추천 의도

추천의도를 묻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주 남산 방문을 권유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30> 추천의도

배경 변인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계		χ^2
		N	%	N	%	N	%	N	%	
성별	남	10	3.6	29	10.3	109	38.7	148	52.5	$\chi^2=.148$ df=4
	여	10	3.6	40	14.2	84	29.8	134	47.5	
연령	20세미만	1	.4	12	4.3	18	6.4	31	11.0	$\chi^2=.077$ df=12
	20~30대	12	4.2	32	11.3	69	24.5	113	40.1	
	40~50대	6	4.2	23	8.2	101	35.8	130	46.1	
	60대이상	1	.4	2	.7	5	1.8	8	2.8	
결혼 유무	기혼	10	3.6	37	13.1	129	45.8	176	62.4	$\chi^2=.101$ df=8
	미혼	10	3.6	32	11.3	64	22.7	106	37.6	
학력	고졸이하	2	.7	14	5.0	49	17.4	65	23.0	$\chi^2=.573$ df=16
	고졸/ 전문대졸	11	3.9	41	14.5	86	30.6	138	49.0	
	대졸	7	2.5	13	4.6	57	20.2	77	27.3	
	대학원졸	0		1	.4	1	.4	2	.7	
직업	전문직	4	1.4	8	2.8	18	6.4	30	10.6	$\chi^2=.216$ df=20
	자영업	2	.7	7	2.5	43	15.2	52	18.5	
	농·어업	2	.7	9	3.2	24	8.5	35	12.4	
	도시 근로자	4	1.4	4	1.4	12	4.2	20	7.1	
	기타	8	2.9	41	14.5	96	34.1	145	51.4	
거주지	경주	5	1.8	23	8.2	95	33.7	123	43.6	$\chi^2=.053$ df=16
	경상도	9	3.2	33	11.7	72	25.5	114	40.4	
	충청도/ 전라도	1	.4	1	.4	10	3.6	12	4.3	
	수도권	4	1.4	11	3.9	15	5.3	30	10.6	
	강원도	1	.4	1	.4	1	.4	3	1.1	
계		20	7.1	69	24.4	193	68.5	282	100	

남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타인에게 남산 방문을 추천할 의도가 있는가를

문는 본 설문에서는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93명, 68.5%의 응답자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본 설문의 결과는 남산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강력한 추천의사를 가지고 있는 남산 방문객들은 남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민간사절이라고 여겨진다. 남산 방문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논문은 방문객의 관점에서 경주 남산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기타 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주 남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남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한 남자 148명, 여자 134명 총 28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에 대하여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절차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SPSS 10.0이며, 연구의 검증을 위해 설정한 유의 수준은 $p < .05$ 이다.

본 논문에서 사전에 제시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경주 남산 방문객의 관광형태는 어떠한가?

경주 남산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가족을 포함 한 주변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223명, 79.1%),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구간대의 대부분과 학력 변인에서 고졸에서 대졸에 이르는 구간대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을 통해 남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반해 그 외의 연령 대 사람들 중 15명(5.3%)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남산 방문 시 동반자 유형을 알아 본 결과는 배경 변인에 관계없이 가족, 친구, 동료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목적은 20~30대는 유물답사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38명, 13.5%), 40~50대는 등산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44명, 51.6%). 기혼은 등산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64명 22.6%), 미혼은 유물답사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42명, 14.9%). 고졸/전문대졸은 유물답사에 (42명, 14.9%), 대졸은 등산에 (32명, 11.3%)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 방문 교통 수단으로는 남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101명, 35.8%), 여자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4명, 15.6%). 고졸에서 대졸에 속하는 구간의 사람들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146명, 54.8%), 고졸이하의 사람들은 주로 버스를 이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29명, 10.3%). 가장 많이 쓰는 경비항목은 남자는 식비에(66명, 23.4%), 여자는 교통비(79명, 28%)에, 20~30대는 교통비에(66명, 23.4%), 40~50대는 식비에 (58명, 20.6%)에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총 경비는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1~3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주 남산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기타사항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경주 남산을 방문한 사람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에 고르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높은 보존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 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근거리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다 등산로 코스개발에 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확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95.8%에 해당하는 270명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반응함으로서 남산 방문

객의 거의 대다수는 남산의 문화재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 평가에서도 전체적으로 246명, 87.2%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반응함으로서 남산 방문객의 거의 대부분은 남산이 가진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자원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40~50대의 응답자들이 ‘그렇다’에 많이 반응함으로서(114명, 40.4%) 중·장년층 연령대의 사람들이 남산의 자연 경관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22명, 78.7%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반응한 결과로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남산이 가진 자연 경관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산 자연 보존 상태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기혼자들은 남산의 자연 보존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지 않다’에 79명, 28.0%가 반응을 보여 다른 반응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혼자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 고졸/전문대졸 배경 변인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에 67명, 23.8%의 반응을 보여 다른 반응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다른 학력 변인을 가진 집단들은 비교적 고른 반응을 나타내었다. 남산이 가지는 휴식·문화공간으로서의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23명, 43.6%의 응답자가 ‘그렇다’에 101명, 35.8%의 응답자가 ‘보통이다’에 58명, 20.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총 응답자의 20.6%에 이르는 사람들이 남산이 휴식처 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고 반응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남산자원 보호 시설 만족도에서는 20~30대 응답자는 ‘보통이다’에 가장 많이 반응한 반면(38명, 13.5%), 40~50대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에 가장 많이 반응했다(58명, 20.5%). 이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남산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이하에 200명, 70.9%가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남산 보호에 관심이 깊었으며 남산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산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기혼자들은 ‘그렇다’에 가장 많은 반응(100명, 35.5%)를 보인 반면, 미혼자들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43명, 15.2%). 남산의 홍보 물 이용 용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산 방문자들은 현재의 남산 홍보물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산 이용 시 안내시설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적으로 반응자의 232명, 82.3%가 ‘보통이다’ 이하에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현재의 안내시설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산의 문화재 해설 장치의 만족성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남산의 문화재 해설 장치의 기능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이하에 232명, 82.3%가 반응함으로써 현재 남산의 문화재 해설장치가 방문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지만(113명, 40.1%),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에도 고른 반응을 나타내었다. 화장실 이용 만족도를 묻는 설문 결과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이하 222명, 78.8%가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객들은 배경 변인과 상관없이 화장실 사용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주 남산의 국제성 확보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역사유적(135명 47.9%), 다른 문화재와의 연계(106명 37.6%)에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극소수(2명, 0.7%)만이 ‘등산 코스 개발’을 남산의 국제성 확보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3) 방문객의 관광 상품으로서 남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경주 남산 방문 후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근거리 거주자일수록 남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이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지역 민들에 의해 더욱 사랑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258명, 51.5%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의 만족에 반응함으로써 대부분의 남산 방문자들은 남산 방문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의 재 방문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212명, 75.2%)가 재 방문 의사가 있다고 반응함으로써 남산 방문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산 방문객들이 느끼는 타인에 대한 추천 의사는 전체적으로 193명, 68.5%의 응답자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결 론

본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인 경주 남산을 관광목적지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 결론에 근거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근거리 방문자 중심의 지역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경주 남산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의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방문객 대부분이 근거리 방문자이며 외국 방문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남산이 관광 목적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국인 및 장거리 방문객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주시, 경상북도 등 지방 자치 단체, 정부, 민간단체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남산의 자연 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현재의 남산 자연 경관에 상당한 만족과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역사성과 교육적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남산의 새로운 등산로 개발 등 상업적 개발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자연적인 남산, 과거의 역사적 흔적이 잘 보존된 남산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재 남산은 자연 경관이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남산의 자연 경관과, 문화재를 보호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상주 인력의 확보, 예산 확보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 경관과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 공간의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 남산은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한 1차적 휴식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테마를 가지고 문화재와 잘 어울려 조성된 문화 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남산의 휴식, 문화 공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 대부분은 남산 방문 시 자연 경관에서 느끼는 감동을 이어줄 훌륭한 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결과에서 방문객들은 남산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성과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확인에서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남산이 단시간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관광 목적지로서 관광객을 흡수하여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남산의 자연 자원과 친화적인 휴식·문화 공간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남산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남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다수의 방문객들은 홍보물, 안내 시설, 문화재 해설 장치,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의 시설을 방문객 중심으로 확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남산을 편안한 곳으로 인식하여 방문하여 머무르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방문객 접근 성의 편리함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남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편의 시설 확보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현대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도록 하여 방문객들이나 그 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로로 남산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체계적인 방문객 사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도 남산 방문객 대부분은 남산 방문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재 방문 의사도 강력히 가지고 있고 남산은 자주 방문할수록 만족도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다른 사람에게 남산 방문을 권할 의사도 강력히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방문에 대한 강력한 추천의사를 가지고 있는 남산 방문객들은 남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민간사절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남산 방문객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산 방문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경주 남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사적지를 포함한 문화재는 신라의 시작과 끝을 맺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들의 종교나 의식을 알 수 있는 유산들로 자연과 역사가 동일 장소에 함축되어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교육적 관광의 대상이면서 자연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복합형 관광자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문객에게 문화재의 역사적·교육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매력성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주 남산이 발전된다면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경주의 관광자원과 남산을 연계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면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관광객의 방문을 사계절로 유도할 수 있어 경주가 지속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서적>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2). 「경주 남산 문화재의 종합적 검토」.
- 김성기(1997). 『관광자원론』. 기문사.
- 박석희(1995).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박석희(2000).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박선희(1997).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 박선희(1999). 『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이선희(1992). 『관광마케팅개론』. 서울: 대왕사.
- 이장춘(1998). 『최신관광자원학』. 서울: 대왕사.
- 이주형 외(1997). 『관광학』. 서울: 백산출판사.
- 윤경렬(1993). 『경주남산-겨레의 땅 부처님 땅』. 불지사.
- 조선일보사(1999). 『경주남산』.
- 최규태(1999). 『한국관광자원론』. 대왕사.
- 표성수(1996). 『관광사업투자론』. 서울: 백산출판사.
- 한국관광연구원(1998). 「역사·문화관광을 주목하라」. 관광정보.
- 한국관광연구원(1998). 「WTO, 21세기 여행형태전망」. 관광 L&L 정보, 8월호.

<국내 논문>

- 고동우(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대진(1999). 강진청자문화재 관광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해도(1990). 소비자만족에 관한 연구: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두하(1999). 주제공원 이용자의 만족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우(2000).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호(1993). 관광자의 만족/불만족 및 재방문의 평가합치적 접근.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진영 · 장경수(2000). 사찰관광지 방문객의 만족과 재방문에 관한 연구. 『관광 · 호텔연구』, 2(1).

박종희(2000). 전통무예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관광 · 호텔연구』, 2(1).

사장진(1994). 문화관광객의 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일화(2000). 국적별 문화관광체험과 관광지 속성이 만족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도길(1993). 관광지속성과 만족도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일본 방한관광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상도(1992). 관광지의 사회문화구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동구(2001). 관광객만족 구조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유재(1995). 고객만족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경영논집』, 29(1/2).

이주한(2000). 테마파크 이용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나리(2001). 생태관광동기 및 태도와 자원해설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 문헌>

- Bultena, G. L., and L.L. Klessing(1969). Satisfaction in camping: A Conceptualization and Guide to Social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 348~354.
- Dann, Graham M. S.(1979). Tourist Satisfaction: A Hishly Complex Variab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5: 440~443.
- Dann, Graham M. S.(1981). Tourism Motivation: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8(2): 187~219.
- Geva, A and A. Goldman(1991). Duality in Consumer Post-Purchase Attitud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 141~164.
- Iso-Ahola, Seppo E(1980). *The Social Psychol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im. C. Brown.
- Lapage, W. F.(1983). Recreation Resource Management for Visitor Satisfaction.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2): 37~44.
- Manning, Robert E.(1986).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Search and Research for Satisfaction*. Oregon State Universty Press.
- Mazursky, David(1989). Past Experience and Future Tourism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3): 334~344.
- Oliver, Richard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rach*, 17(November): 460~649.
- Pearce, Philip L.(1980). A Favorability-Satisfaction Model of Tourist's Complaints. *Tourism Management*, 5(1), 20~23.
- Pearce, Philip L., and Gianna M. Moscardo(1984). Making Sense of Tourist's Complaints. *Tourism Management*, 5(1), 20~23.
- Pizam, Abraham, Yoram Neumann, and Arie Reichel(1978). Dimensions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a Destination A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5(3): 314~322.

A Way of Activating Tourist Potential Based on Evaluation of Satisfaction

- In the Area of Gyeongju -

Lim, Hyun jung

Department of Tourism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Woo Hee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activate the tourist potential of Mt. Namsan in Gyeongju on the basis of ascertaining the visitors' satisfaction with its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as a tourist goods. Random sampling of 282 people (men 148, women 134) who visited Mt. Namsan were asked to conduct this research effectively.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are verified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concretely.

For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SPSS 10.0 was used, and significance level set up for the verification was $p < .05$.

The preliminary questions suggested in advance to define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type of tourists who visit Mt. Namsan? Secondly, How are they satisfied with the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of Mt. Namsan? Thirdly, How do they think of Mt. Namsan as tourist good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o activate tourist potential at Mt. Namsan are as follows.

Firstly, establishment of a plan so that tourists from long distance can visit Mt. Namsan easily is urgently needed.

Secondly, a variety of efforts to preserve the natural and cultural assets of Mt. Namsan are needed.

Thirdly, cultural facilities to harmonize natural scenery with cultural assets should be built.

Fourthly, amenities for tourists should be secured.

Fifthly, systematic visit support services of Mt. Namsan visitors is desperately needed.

Mt. Namsan has advantages in that it has complex tourism potential which means that it is an educational and cultural tourist attraction. It has been highly evaluated for its historical and educational value of cultural assets by the visitors.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will become a great tourist resource to the nation and foreign visitors if it is developed to meet the demand of its visitors. Furthermore, if the present tourist attractions in Gyeongju area are connected with Mt. Namsan, Gyeongju will be highlighted as a everlasting tourism site where it is filled with tourists all four seasons.

부 록】

경주 남산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께서 경주 남산의 잠재관광자원에 대한
만족도와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수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용 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
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월

지도교수: 경주대학교 관광학과 변우희

조 사 자: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석사과정 임현정

I.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항목입니다. 귀하께서 해당되는 번호에 (V)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20세 미만 ②20~30대 ③40~50대 ④60대 이상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기혼 ②미혼
4.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고졸 또는 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5. 귀하의 직업은?
①전문직 ②자영업 ③농/어업 ④도시근로자 ⑤ 기타()
6. 귀하의 거주지는?
①경주 ②경상도 ③충청/전라도 ④수도권 ⑤강원도

II. 경주 남산 방문에 관한 관광형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일치하는 해당번호에 (V)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주 남산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셨습니까?
①여행사 ②가족/친구 등 주변사람 ③관광안내책자/팸플렛
④인터넷 ⑤광고(신문/잡지/라디오/TV 등) ⑥기타()
8. 경주 남산은 주로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①친밀한 관계의 사람(가족/친구/동료/연인) ②개인적 친목모임
③업무상 모임 ④기타()
9. 방문목적은 무엇입니까?
①등산 ②문화재 등 유물답사 ③자녀의 교육

④동료들과의 친목 ⑤기타()

10. 경주 남산 방문 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자가용 ②버스 ③택시 ④관광버스 ⑤기타()

11. 경주 남산 방문을 위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비는 어느 부분입니까?

①남산 방문을 위한 책자나 지도구입 ②교통비 ③식비 ④기타()

12. 경주 남산 방문을 위해 지출한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 원)

Ⅲ. 경주 남산의 잠재관광자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항목들입니

다.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해당번호에 (V)를 해주십시오.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3 경주 남산의 관광 활성화가 경주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경주 남산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경주 남산의 새로운 대체 코스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경주 남산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경주 남산의 문화재가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경주 남산의 자연경관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경주 남산 자연자원의 보존상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경주 남산이 휴식처·문화공간으로서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경주 남산 보호시설(생태계보호/쓰레기처리 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경주 남산의 접근(교통편/진입도로)이 편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경주 남산의 홍보 물(팸플렛/등산지도)이 이용에 편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4 경주 남산의 안내시설(안내소/표지판)은 편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5 경주 남산의 문화재 해설 기능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6 주차장의 수용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7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수는 이용에 편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8. 경주 남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자연자원 ②역사유적(문화재) ③다른 문화재와 연계 관광 코스 개발
④등산코스 ⑤기타()

IV. 관광상품으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번호에 (V)를 해주십시오.

29. 경주 남산의 방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0. 경주 남산을 다시 방문 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1. 다른 사람에게 남산 방문을 권유하시겠습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